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세안 개황

2020. 11.

아세안 상징기



- 아세안의 로고는 안정, 평화, 화합, 역동성을 상징
- 상징기에 사용된 파란색, 빨간색, 흰색, 노란색은 각각 아세안 국가들을 대표하는 색상
 - 파란색은 평화와 안정을, 빨간색은 용기와 활동성을, 흰색은 순수함을, 노란색은 번영을 의미
- 중간의 노란색 벗자루 모양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우정과 협력 증진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며, 동그란 띠는 아세안의 화합을 상징

아세안 회원국 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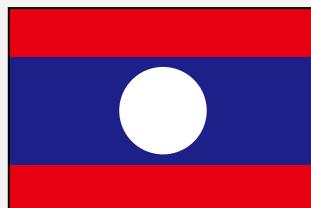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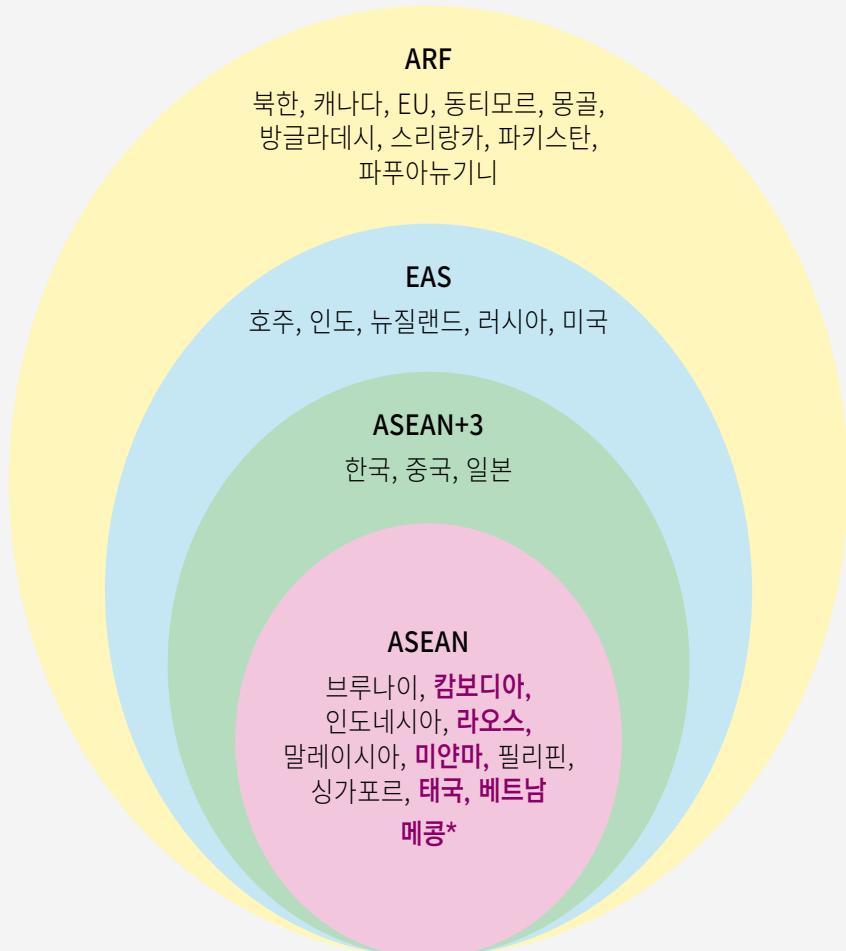


베트남

아세안 지도



아세안 관련 지역 협의체





2020 아세안 개황

목 차



제 1 장	아세안 일반	13
I.	아세안 개관		14
II.	아세안의 성립과 발전		19
1.	아세안의 성립		19
2.	아세안의 발전 과정		20
III.	분야별 협력 현황		31
1.	정치·안보 분야		31
2.	경제·통상 분야		34
3.	국제협력 분야		36
제 2 장	우리나라와 아세안	43
I.	한-아세안 개관		44
II.	한-아세안 체제 운영 현황		48
III.	한-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결과		50
1.	최근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50
2.	역대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64
IV.	한-아세안 협력 현황		66
1.	정치·외교 분야 협력		66
2.	경제·통상 분야 협력		69

제 3 장	아세안+3 체제	93
	I. 아세안+3 개관	94
	II. 아세안+3 체제 운영 현황	96
	1. 참석 수준별 회의체 종류	96
	2. 부문별 주요 협력사안	99
	3. 아세안+3 협력체 현황표	101
	III. 아세안+3 정상회의 주요결과	106
	1. 최근 아세안+3 정상회의 결과	106
	2. 1997~2019년간 아세안+3 정상회의 결과	117
	IV. 아세안+3 주요 협력 현황	119
	1. 아세안+3 협력의 발전	119
	2. 주요 협력 성과	126
	3. 우리측 주도 협력사업	132
	4. 아세안+3 협력기금(APTCF)	133
제 4 장	EAS 협력	135
	I. 설립 배경	136
	II. EAS 체제 운영 현황	138
	III. 역대 EAS 정상회의 주요 결과	141
	IV. EAS 분야별 협력 현황	156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Brunei | Cambodia | Indonesia | Laos | Malaysia | Myanmar | Philippines | Singapore | Thailand | Viet Nam

제 1 장

아세안 일반

I. 아세안 개관

II. 아세안의 성립과 발전

III. 분야별 협력 현황

I

아세안 개관

■ 명칭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회원국 및 대화상대국

- 회원국(총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대화상대국(대화상대국 10개국, 부분대화상대국 4개국/국제기구 제외)

-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s):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10개국

- 부분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 파키스탄,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 비국가 대화파트너(Non-Country Dialogue Partner): UNDP

- 개발 파트너(Development Partner) : 독일,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 2020.9월 제53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프랑스, 이탈리아를 개발 파트너로 승인

■ 창설 배경

- 베트남전 본격화, 인도차이나 공산주의 확산 등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 대응 필요성에 따라, 1967.8.8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이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 아세안 창립선언(방콕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결성

■ 아세안 전체 주요 지표 (2019년 기준)

- 인구 : 약 6,061.7만명
- 면적 : 약 448만km²
- GDP : 3조 1,731억불
- 총교역량 : 3조 5,608억불(수출: 1조 8,496억불 / 수입: 1조 7,112억불)

※ 출처 : 인구, 면적, GDP, 총교역량(World Bank, IMF)

■ 회원국별 규모(경제, 인구 등) 비교

- 일반사항

(인구 기준 : 2019년)

국가	면적(km ²)	인구
브루나이	5,770 (경기도 0.5배)	0.4 백만명
캄보디아	181,040 (한반도 0.8배)	16.5 백만명
인도네시아	1,910,931 (한반도 9배)	270.6 백만명
라오스	236,800 (한반도 1.1배)	7.2 백만명
말레이시아	330,800 (한반도 1.5배)	32.0 백만명
미얀마	676,590 (한반도 3배)	54.0 백만명

필리핀	300,000 (한반도 1.3배)	108.1 백만명
싱가포르	719 (서울시 1.2배)	5.7 백만명
태국	513,120 (한반도 2.3배)	69.6 백만명
베트남	330,967 (한반도 1.5배)	96.5 백만명
합 계	4,486,737km ²	660.6 백만명

※ 출처 : 면적(World Bank), 인구(UN)

○ 경제현황

(기준: 2019년)

국가	GDP	1인당 GDP	수출	수입	교역
브루나이	134.69억불	31,087불	78.05억불	68.11억불	146.16억불
캄보디아	270.89억불	1,643불	165.49억불	169.21억불	334.71억불
인도네시아	11,191.91억불	4,136불	2,060.2억불	2,114.81억불	4,175.01억불
라오스	181.74억불	2,535불	58.09억불	71.09억불	129.18억불
말레이시아	3,647.02억불	11,415불	2,382.99억불	2,106.16억불	4,489.15억불
미얀마	760.86억불	1,408불	182.35억불	184.90억불	367.25억불
필리핀	3,767.96억불	3,485불	1,067.84억불	1,517.24억불	2,585.08억불
싱가포르	3,720.63억불	65,233불	6,455.93억불	5,418.39억불	11,874.32억불
태국	5,436.50억불	7,808불	3,247.81억불	2,748.61억불	5,996.42억불
베트남	2,619.21억불	2,715불	2,797.20억불	2,713.63억불	5,510.83억불
합 계	3조 1,731.40억불 (평균)13,146.5불	1조 8,495.90억불	1조 7,112.14억불	1조 5,608.04억불	

※ 출처 : GDP, 1인당 GDP, 수출, 수입, 교역(World Bank, IMF)

■ 주요회의체 및 구성

회의	개최 목적 또는 역할	개최 시기
정상회의 (Summit)	최고 의사결정 기구	1976.2월 제1차회의 개최 2008년 말 아세안현장 발효 이후 연 2회 개최
조정이사회 (Coordinating Council)	회원국 외교장관으로 구성되며 주요정책결정 등 아세안의 전반적인 활동 조정	연 2회 개최
공동체이사회 (Community Councils)	정치·안보공동체이사회, 경제공동체이사회, 사회·문화 공동체 이사회로 구성	
부문별장관급회의 (Sectoral Ministerial Bodies)	각 공동체 이사회 산하의 관련 장관급 회의 ① 정치·안보공동체 이사회 산하 외교장관회의(AMM), ARF 등 7개 회의체 ② 경제공동체 이사회 산하 경제장관회의(AEM), 관광장관회의(M-ATM) 등 16개 회의체 ③ 사회·문화공동체 이사회 산하 환경장관회의(AMME), 보건장관회의(AHMM) 등 19개 회의체 ⇒ 총 42개 부문별 회의체 존재	부문별 회의 개최빈도 상이
상주대표위원회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PR)	공동체 이사회 및 부문별 장관급회의 업무 지원 등의 역할 수행	정례회의 개최 및 필요시 수시 개최
국별사무국 (National Secretariats)	회원국 각각의 외교부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회원국 간 접촉 창구 및 아세안 관련 정보 종합 등의 기능 수행	
해외 아세안위원회 (Committees Abroad)	대화상대국을 포함한 총 21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사들로 구성	※ 한국에는 ASEAN Committee in Seoul 구성
아세안 사무국 (ASEAN Secretariat)	아세안의 정책·사업 활동 조정 및 지원,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등 각종 회의 준비 및 보고서 작성, 외국 관계기관에 대한 사무연락 및 자료 발간 등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1976.2월 설치) ※ 사무총장(임기 5년, 장관급)은 아세안 회원국 관리·학자들 중 외교장관회의의 추천을 받아 정상회의에서 임명	

아세안 사무총장

성명	림 족 호이(Lim Jock Hoi)	
생년월일	1951년 12월 5일	
주요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6 경제학 학사(영국)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7 교육부, 강사 ◦ 1985 교육부, 교장 ◦ 1986 교육부, 차관실 교육부국장 ◦ 1989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통상국, 연구사 ◦ 1996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통상국 국장 ◦ 2001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통상국 총국장 ◦ 2005 외교통상부, 통상국 총국장 ◦ 2005 외교통상부, 차관보 ◦ 2007 외교통상부, 차관(경제통상담당) ◦ 2018.1.1.~ 아세안 사무총장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형 림 족 생(Lim Jock Seng)은 2018.1월까지 제2외교장관 역임, 중국계 ◦ TPP, BJEPAP* 협상 브루나이 수석대표 역임 ◦ 2022.12.31일 사무총장 임기 만료 예정 	

* BJEPAP: The Brunei-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I

아세안의 성립과 발전

1. 아세안의 성립

- 1950년대 말 유럽 경제공동체 설립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3개국이 지역협력 증진 및 공산주의 확대 저지를 위해 1961.7월 동남아 연합(ASA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창설
- 1960년대 중반 베트남전, 중국의 문화 대혁명 등 주변정세 악화와 싱가포르 독립(1965.8), 인도네시아 쿠데타에 의한 수하르토 정권 등장(1965.9) 등 역내정세 변화에 따라 ASA 확대 필요성 대두
- 1967.8.8일 방콕에서 ASA에 인도네시아·싱가포르가 합류, 5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창설을 선언(방콕 선언)함으로써 공식 발족
-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창설 멤버에 이어 브루나이가 독립(1984.1, 영국) 후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1984.1.7.)
- 1990년대 들어 냉전 종식 등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세계적 지역주의화 현상은 동남아 지역주의를 가속화, 아세안 확대의 여건이 성숙하면서 베트남(1995.7.28.), 라오스·미얀마(1997.7.23.), 캄보디아(1999.4.30.)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잇달아 가입

2. 아세안의 발전 과정

■ 비정치분야 중심 협력 조성단계(창설-1970년대 전반)

- 창설 초기에는 「아세안 기금」 창설(1969.12) 등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 1970년대 초반 낙수 독트린, 미·중 관계 개선 등 지역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 1971.11월 「동남아 평화·자유 및 중립지대 선언」(ZOPFAN :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Declaration)을 채택

■ 정치분야 포함 지역협력 강화단계(1970년대 후반-1980년대)

- 1976.2월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정치·경제 각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간 역내 협력과 단결을 강조하는 「아세안 협력선언 I」 채택,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 :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체결, 아세안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지역협력체로서의 발전 기반을 구축
- 경제면에서는 1977.2월 「아세안 공업 프로젝트」(AIP), 「아세안 특혜 무역 협정」(PTA) 체결 등 협력기반을 확충하고, 대외적으로 호주·뉴질랜드·캐나다·일본·미국 등 역외국과의 대화관계를 수립

※ 대화상대국 대화관계 수립년도

대화상대국	수립년도	대화상대국	수립년도
호주	1974	한국	1989 (1991 완전대화상대국으로 전환)
뉴질랜드	1975	중국	1996
미국	1977	러시아	1996
일본	1977 (1973 비공식대화관계 수립)	인도	1992 (1996 완전대화상대국으로 전환)
캐나다	1977	파키스탄	1993 (부분대화상대국)
EU	1977	노르웨이	2015 (부분대화상대국)
UNDP	1977	스위스	2016 (부분대화상대국)
		터키	2017 (부분대화상대국)

* 중국은 1991년 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 주빈국으로 참석한 점을 기념, 2021년 중-아세안 관계 3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 추진 중

■ 지역공동체로서의 확대발전 추구(1990년대 이후)

- 냉전 종식·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등의 추가 영입, 1992.1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 합의
- 1994.7월 역내 유일의 다자 안보 협의체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창설을 통해 신뢰구축 및 지역평화 추구
- 특히 1997.7월 태국의 금융위기를 시발로 확산된 동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 간 경제통합 움직임의 가속화 추진

- 1997년 제2차 비공식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규회원 가입을 통한 아세안의 확대,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통한 역내 통합 의지 등을 표명한 아세안 Vision 2020 채택

「아세안 비전 2020」

- 1997년 제2차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아세안의 장기 발전계획을 채택하며 4대 목표 제시
 - 4대 목표 : 아세안 회원국간 협력, 아세안의 경제통합과 역동적인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역정체성 및 공동역사·문화에 기초한 아세안 공동체 구현 및 대외지향적 아세안 실현
- ※ 하노이 행동계획(Hanoi Plan of Action)
 - 아세안 Vision 2020 실천을 위한 1999-2004년간 경제협력,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안보 등에 관한 이행방안을 명시한 중기 계획으로 1998년 제6차 정상 회의에서 채택

■ 2015 아세안 공동체 출범 추진(2000년대 이후)

가. 아세안 협력선언 II(Bali Concord II)

- 2003.10월 제9차 정상회의시 2020년까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공동체 창설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3개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협력선언 채택
 - 정치·안보 공동체 : 안보협력 확대를 지향하며 「동남아 우호협력 조약」을 실현 수단으로 활용
 - 경제공동체 : 상품·서비스·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 형성을 지향하며 인적자원 개발·금융정책 협력도 확대

- 사회·문화 공동체 : 인구·교육·전염병 예방 등 여러분야에서의 공동 협력 강화를 통해 ‘돌보는 사회의 공동체(a community of caring societies)’ 건설

나. 비엔티안 행동계획(Vientiane Action Program)

- 2004.11월 제10차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간의 개발격차 해소와 통합을 위해 비엔티안 행동계획 채택
 - 2007년(후발국인 CLMV* 국가들은 2012년)까지 자동차·농산물 등 11개 우선 분야의 교역 자유화를 추진
-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이후에는 국방·경제·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후속 이행작업에 돌입

다. 세부 선언(Cebu Declaration)

- 2007.1월 제12차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 설립 가속화에 대한 세부 선언 채택
 - 당초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던 「3개의 아세안 공동체」 창설을 2015년까지로 조기 추진 결정

라.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발효

- 아세안의 체계화 및 제도화를 구현하여 지역기구로서의 아세안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세안 헌장 채택
 - 2007.11월 싱가포르 아세안 정상회의시 아세안 헌장에 서명하고 2008.12.15일 공식 발효

아세안 현장 주요내용

- 아세안의 체계화 및 제도화
 - 법 인격(legal personality) 부여
 - 인권기구 설치(2009.10.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출범)
 - 아세안의 자체적인 분쟁해결 기구 설립 명기
- 지역기구로서의 아세안의 역할 강화
 - 매년 아세안 정상회의 2회 개최 / 사무국 조직 확대
 - 인도네시아에 주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 설치 및 상주대사 파견

마. 아세안 인권선언(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채택

- 2012.11월 제21차 아세안 정상회의시 채택되었으며, 인권 보호 관련, 아세안 국가들이 작성한 최초의 제도적 틀
 - 국가 차원의 행동 계획 수립, 지역별·기능별 협력의 틀이 최초로 마련되어,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
- ※ 2009년 아세안 인권위원회 출범

바. 상주대표위원회

(CPR :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설치

- 아세안 내부의 운영방식이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세안 현장 발효와 함께 상주대사 임명
 - 아세안 대표부는 아세안 사무국 소재지인 자카르타 주재
 - 3개 아세안 공동체 이사회(ASEAN Community Councils), 아세안 분야별 장관급 협의체의 업무 지원 및 아세안 대화상대국들과의 협력 활성화 역할 수행

- 한-아세안 연계성 조정 위원회(ACCC) 및 자카르타 EAS 회원국 대사 회의(EAMJ) 등 주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CPR) 주도로 다양한 대사 협의체 신설 및 운영

사. 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로드맵

- 2009.2월 제1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로드맵에 관한 후아힌 선언」 채택
 - 동 로드맵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의 부속문서 및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IAI) 2단계 실행계획(2009-2015)으로 구성되며, 비엔티안 행동계획을 대체

아.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한 선언

- 2014.5월 제2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한 네피도 선언'을 채택, 아세안 통합에 대한 정치적 의지 재확인
 - ※ 당초 2015.1.1일까지였던 아세안 공동체 출범 시한을 2015.12.31일로 재조정
 - (정치·안보 분야) 단결, 지역 평화·안정 유지에 중심적 역할 수행, 법치, 인권 증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역 메커니즘에서 아세안의 주도적 위상 및 역할 등 주요 원칙 재확인
 - (경제 분야) 아세안 공동체 실현에 필요한 제반 이니셔티브의 실행 의지를 표명
 - ▶ 특히 아세안 단일 시장 및 생산 기지화, 아세안 단일 항공시장협정 이행, 아세안 단일 해운시장 추진 등 경제 분야 이니셔티브의 이행, 대화 상대국과의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 협정 체결을 통한 외부 경제와의 통합 가속화 의지 표명

- (사회·문화 분야) 아세안 공동체 인지도 증진,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그룹에 대한 권한 강화, 환경 문제, 재난 관리 및 긴급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 강조

자. 아세안 공동체 Post 2015 비전을 위한 네피도 선언

- 2014.11월 제25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 Post 2015 비전에 관한 네피도 선언」을 채택, 공동체 출범 이후 협력 공고화 노력 강조

자.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

- 2015.11월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채택,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의 주요 내용 및 사항들을 강조

※ 동 정상회의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및 아세안 공동체 산하 3개 공동체(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별 부속문서(Blueprint)를 채택

- 2015.12월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단결하며(politically cohesive), 경제적으로 통합되고(economically integrated), 사회적으로 책임감(socially responsible)이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규범 중심적이며, 인간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강조

카. 아세안 공동체 내부통합 심화를 위한 마닐라 선언

- 완전하고 효과적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이행 지속 추진
- 동 비전 실현을 위한 촉매제로서 「아세안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 선언」 별도 채택

2015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출범 (2015.12.31.)

■ 아세안 공동체 개요

- 2015.12.31 공식출범한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 AC)는 3개의 공동체로 구성
 - △아세안 정치 · 안보 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 APSC),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 AEC),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 ASCC)
- 아세안 공동체는 약 인구 6.6억, GDP 규모 약 3.2조 불 규모의 시장형성
 - 아세안의 경제성장률(연 평균 약 5%)은 지속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低임금, △소비시장 팽창, △풍부한 천연자원, △후발신흥국(CLMV) 개혁·개방 등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 강화 예상
- 아세안 공동체 출범은 한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 다대
 - 아세안은 최근 한국의 핵심 경제파트너로 부상(제2의 교역대상, 제3의 투자 대상, 제1의 건설수주 시장, 2019년 기준)
 -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자원(석유, 가스, 석탄 등 수입) 공급지
 - 아세안 회원국들의 도시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경제 한류 저변 확대와 연계

■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의 주요 내용

- 공통 요소
 - 아세안은 규범 중심적이며(rule-based), 인간적이고(people-oriented), 인간중심적(people-centered)인 아세안 공동체 지향
 - 동 공동체는 아세안 Charter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세안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 자유, 높은 삶의 질, 공동체 구축의 혜택 등을 보장
 - 아세안 공동체는 평화적이며, 안정적이고, 회복력(resilient)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세계국가 공동체(a global community of nations)의 일원으로서 대외 지향적(outward-looking) 공동체를 추구
- 정치·안보 공동체(APSC)
 - △규칙 기반 공동체, △포용적 대응 공동체, △관용과 중용 공동체, △포괄적 안보 공동체, △분쟁 해결 공동체, △비핵지대 공동체, △해양 안보 협력 공동체, △아세안 중심성 공동체, △역외 협력 상생 공동체

○ 경제 공동체(AEC)

- △높은 수준의 통합과 유기적인 경제,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제, △연계성 및 부분 간 통합 강화,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인간중심의 공동체, △글로벌 아세안을 지향

※ 3개 공동체 중 아세안 경제 공동체 추진 계획은 명확한 기간 내에 수행 되도록 하는 특정 이행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 정치 안보 공동체 및 사회·문화 공동체 계획에 비해 더 구체적이라는 평가

○ 사회·문화 공동체(ASCC)

- △실행적이고, 참여적이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공동체, △포괄적 공동체, △지속가능한 공동체, △복원력 있는 공동체,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 미래방향

- 향후 10년간 아세안은 통합의 다음 단계인 강력히 단결된 공동체(Stronger Cohesiveness as a Community)를 추구

아세안 연계성

■ 추진 배경

-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해 2009년 「아세안 연계성에 대한 아세안 정상선언」 및 2010년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을 채택하고, 역내 경제발전 및 개발 전략의 최우선 사업으로 「연계성」을 강조
 - 「연계성에 관한 EAS 선언」(2011.11), 「연계성에 관한 아세안+3 파트너십 선언」(2012.11) 채택
 - 「아세안 연계성조정위원회(ACCC)」를 구성하고, 한국, 일본, 중국 등 대화 상대국과 ACCC 협의회 개최

■ 개념

-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사람, 물자, 서비스, 자본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역내 물리적(도로, 항만, 철도 등), 제도적(상품, 서비스 협정 등), 인적(관광, 교육, 문화 등) 인프라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2015년 까지 아세안 공동체를 실현
- ※ 아세안은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 출범 및 「아세안 공동체비전 2025」 발표 이후, 2016.9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MPAC) 2025」을 채택

■ MPAC 2025 사업 분야

5대 전략분야	15개 이ни셔티브
지속가능 인프라 (Sustainable Infrastructure)	① 인프라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 목록 수립 ② 인프라 생산성 측정 · 개선을 위한 플랫폼 수립 ③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 개발
디지털 혁신 (Digital Innovation)	④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채택 ⑤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 지원 ⑥ 공공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⑦ 디지털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 마련
원활한 물류 (Seamless Logistics)	⑧ 교역 경로 및 물류 경쟁력 강화 ⑨ 공급망 효율성 제고
제도 혁신 (Regulatory Excellence)	⑩ 표준, 상호 인정, 기술규제 통합 ⑪ 비관세조치(NTM)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인적 이동성 (People Mobility)	⑫ 관광 정보 제공 강화 ⑬ 비자 간소화 ⑭ 새로운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상호 인정 도입 ⑮ 고등교육 교환 지원

III

분야별 협력 현황

1. 정치·안보 분야

■ 동남아 중립지대 및 비핵화 추진

- 1971.11월 특별 외교장관 회의시 베트남전 악화, 미·중 관계개선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 비동맹·중립주의적 안보개념을 표방한 「동남아 평화·자유 및 중립지대 선언(ZOPFAN)」을 발표
- 1981.8월 아세안 고위관리 회의시 ZOPFAN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동남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검토키로 합의한 데 이어 1995.12월 「동남아 비핵지대화(SEANWFZ :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조약」을 체결(1997.3월 발효)
 - 핵보유국(P-5)의 서명을 추진 중이나, 일부 국가가 국내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 표명
- SEANWFZ 이행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2013-2017) 마련
 - 2015.12월 SEANWFZ 조약에 관한 제70차 UN 총회 결의안 채택
- 현재 SEANWFZ 조약 위원회(구성 : 각 아세안회원국 외교장관), SEANWFZ 조약 집행이사회(구성 : 각 아세안회원국 SOM 대표)가 운영 중이며, 동남아 비핵지대 협력 확대 및 SEANWFZ 조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5개년 SEANWFZ 조약 행동계획 2018-2022 채택

「동남아 비핵지대화 조약」주요 내용

- 핵무기의 개발, 생산, 획득, 보유, 통제권 보유, 주둔(배치·부착·장착·저장·비축 등), 수송, 실험 및 사용금지(제3조 1항)
 - 여타 국가의 핵무기 개발, 생산, 획득, 보유, 통제권 보유, 주둔, 실험 및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의무(제3조 2항)
- 외국항공기나 함선의 통항(통과) 혹은 기착(기항)(제2조 2항)
 - 공해자유, 무해통항, 군도수역 통항에 관한 국제법 존중
- 무해통항, 군도수역 통항 및 통과통항 이외의 외국함선, 항공기의 통항(통과) 및 기착(기항)은 각 당사국이 결정(제7조)
- 핵물질 및 핵폐기물 투기 및 처분 금지(제3조 3항)

■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체결을 통한 역내 분쟁 해결

- 1976.2월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시 ZOPFAN 실현의 수단으로 체약국 간 우호·협력의 증진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한 행동강령 성격의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을 채택
- 1992년 UN 총회의 TAC 지지 결의안 채택 등에 힘입어 국제적 지지 확보에 주력하면서 TAC 가입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가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역외국들의 참여를 권유
 - 당시 한국은 UN 총회에서 TAC 지지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 1987년과 1998년의 개정을 통하여 아세안 역외국도 가입 가능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1. 주요 내용

- 각국의 독립, 주권, 평등, 영토 보전 등 체약국 상호관계에 관한 기본원칙 천명
- 체약국 간 전통적, 문화적, 역사적 유대 및 선린 우호관계의 강화
- 역내 평화와 안정, 경제, 사회, 기술 등 공동이해 관계가 있는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추구
- 분쟁 발생시 무력사용 또는 사용의 위협 포기 및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추구
- 역내 협력과 단결을 바탕으로 역외국들에게 아세안 지역안보협력 노력 (중립주의, 무력사용 배제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참할 것을 촉구

2. 당사국 : 총 40개국

- 아세안 10개국, 파푸아뉴기니(1989.7.), 중국·인도(2003.10.), 일본·파키스탄(2004.7.), 한국·러시아(2004.11.), 뉴질랜드·몽골(2005.7.), 호주(2005.12.), 프랑스(2006.7.), 동티모르(2007.1.), 방글라데시·스리랑카(2007.8.), 북한(2008.7.), 미국·캐나다·터키(2009.7.), EU·영국·브라질(2012.7.), 노르웨이(2013.7.), 칠레·모로코·이집트(2016.7.), 이란·아르헨티나(2018.8.), 페루(2019.2.), 독일·바레인(2019.11.)

■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 동남아는 테러·마약밀매·해적 등 초국가적 범죄에 취약한 지역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제마 이슬라미야’ 등 알카에다 및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과격 이슬람세력들의 테러위협에 노출
- 1997.12월 「초국가 범죄 각료회의」를 신설하고 2001.11 對테러 공동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역내 협력을 강화
- 역외국인 미국(2002.8.), 중국(2002.11.), EU(2003.1.), 인도(2003.10.), 러시아·호주(2004.6.), 일본(2004.11.), 한국·뉴질랜드·파키스탄(2005.7.),

캐나다(2006.7.) 등과의 對테러 협력 공동선언을 채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 2015.4월 제26차 정상회의시 폭력적 극단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주도로 「온건주의 운동 확산을 위한 랑카위 선언」 채택
- 2017. 9월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2016-2025) 채택
- 2019. 9월 제34차 정상회의시 아세안 형사사법공조조약(MLAT)을 아세안 조약으로 승격
- 아세안 형사사법공조조약의 대화상대국 등 역외국가 가입절차 등 고위급 회의(ASLOM)에서 검토 예정

2. 경제·통상 분야

■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

- 1992.1월 제4차 정상회의시 「경협 증진에 관한 기본협정」과 역내 관세를 5%로 낮추는 내용의 「공동유효 특혜관세 협정」(CEPT)을 체결하는 등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 추진에 합의
- 1999.11월 제3차 비공식 정상회의시 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필리핀 등 아세안 선발 6개국은 2010년, 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각각 관세를 철폐키로 결정
- 이에 따라 2002.1월 선발 6개국간 관세인하를 개시, 2006.8월까지 0~5% 이하 관세 인하율이 99.77%에 이르는 등 사실상 AFTA 출범하였고 2018.1.1일 일부로 아세안 역내 관세 전면 철폐

■ AFTA 플러스 정책 추진

- 아세안은 자유무역지대를 기반으로 경제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세안 투자지대(AIA)」, 「e-아세안 구상」 등을 포함하는 「AFTA 플러스」 정책을 추진

- 「e-아세안 구상」은 아세안을 하나로 묶는 종합적인 정보 인프라구축 및 전자 상거래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0.11 제4차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e-아세안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채택

※ e-아세안 기본협정 주요 내용 :

ICT 제품 관세 철폐(선발 6개국은 2005년, 후발 4개국은 2010년), 회원국간 정보격차 완화, e-아세안 실현을 위한 민간부문 협력 촉진, 정보통신기술 상품·서비스 거래 및 투자 원활화

■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추진

- 1998년 제6차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비전 2020」 실현을 위한 중기 계획으로서 1999-2004년간 경제협력,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안보 등에 관한 이행방안을 명시한 「하노이 행동계획(Hanoi Plan of Action)」을 채택
- 2000.11월 제4차 비공식 정상회의시 아세안 선·후발국간 경제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를 추진키로 합의
- 2002.11월 제8차 정상회의에서 「IAI 작업계획(2002-2008)」을 승인,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정보통신 기술, △지역경제 통합 등 4개 분야 총 134개 사업 추진
 - 아세안에서 191백만불, 대화상대국·개발기구 등에서 20백만불(우리 나라 5백만불) 지원

- 2005.12월 제11차 정상회의에서는 4개 후발 회원국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늘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개발기금의 확대를 위해 노력키로 약속
- 2009.3월 제14차 정상회의에서 2009-2015년간 IAI 2단계 실행계획 승인
 - 아세안 공동체 실현에 있어 개발 격차 해소의 중요성 강조
- 2016.9월 제28차 정상회의에서 2016-2020년간 IAI 3차 작업계획 승인
 - 2015년 채택된 아세안 공동체 청사진 2025 및 여타 아세안 부문별 작업 계획들과의 조율 중요성을 강조
- 2019.10월 제9차 IAI TF-아세안 대화상대국 회의에서 IAI 3차 작업 계획(2016-2020) 추진 현황 확인
- 2020.10월 제10차 IAI TF-아세안 대화상대국 회의에서 IAI 3차 작업 계획(2016-2020) 추진 현황 및 IAI 4차 작업계획(2021-2025) 추진 계획 설명
 - 2020.9월 기준, 5대 전략 분야(①식품·농업, ②무역활성화, ③중소기업, ④교육, ⑤보건·웰빙)를 중심으로 127개 프로젝트에 약30백만 불이 집행되어 84.6% 이행률 집계
 - IAI 4차 작업계획(2021-2025)은 2020.11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승인 예정

3. 국제협력 분야

■ 역외국과의 대화 협의체 확대

- 1978.6월 아세안-일본간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역외국들과의 정기 협의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

- 1979년부터 확대외교장관회의(PMC: Post Ministerial Conference)를 정례화 하여 한·미·일·중·러·캐나다·호주·인도·뉴질랜드 등 9개국 및 EU 와의 회의 개최, 역내 현안과 쌍무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
- 1997년 이래 한·중·일 3국과 개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와도 각각 양자 정상회의 개최
 - ※ 아세안과 주요국 양자 정상회의 개최 현황 : △미국(제2회(2014)부터 제7회(2019)까지 매년 개최, 특별정상회의(2016, 서니랜드)), △중국(제 17회(2014)부터 제22회(2019)까지 매년 개최), △일본(제17회(2014)부터 제22회(2019)까지 매년 개최, 특별정상회의(2003, 2013)), △러시아(제1회(2005), 제2회(2010), 제3회(2018), 특별정상회의(2016)), △호주(제1회(2016), 특별정상회의(2018, 시드니)), △인도(제14회(2016), 제15회(2017), 제16회(2019), 특별정상회의(2018, 뉴델리))

■ 아시아·태평양 다자안보 논의 주도

- 1993.7월 아세안 주도로 한·미·일 등 아·태지역 18개국이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을 창설키로 합의, 1994.7 월 방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 간 다자 안보협의체 발족
 - ※ 회원국은 캄보디아(1995.7.), 인도·미얀마(1996.7.), 몽골(1998.7.), 북한(2000.7.), 파키스탄(2004.7.), 동티모르(2005.7.), 방글라데시(2006.7.), 스리랑카(2007.8.)가 가입함으로써 총 27개국으로 확대
 - ※ 2000.7 북한 가입시 ARF 계기 남·북한간 최초 외교장관회담 개최
 - ※ 역대 ARF 계기 남북 외교장관회의 4회 개최(2000, 2004, 2005, 2007)
- ARF는 지역 및 국제 안보 정세 등 각국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역내외 신뢰구축 증진에 기여
 - ※ 해당연도 아세안 의장국이 ARF 의장국 겸임

- 2009.7월 제16차 ARF 외교장관회의시 2020년까지 ARF가 지향해나갈 방향을 제시한 「ARF 비전 성명」이 채택되어 향후 ARF가 보다 행동 지향적인 지역안보 포럼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초석 마련
 - 2010.7월 제17차 ARF 외교장관회의에서는 「ARF 비전 성명」의 구체 행동계획을 규정한 「하노이 행동계획(Hanoi Plan of Action)」 채택※ 하노이 행동계획 주요 내용 : △재난구호, 대테러·초국가범죄, 해양안보, 군축·비확산, 평화유지, 국방대화(DOD) 등 6개 협력분야에서의 세부 이행 목표 명시, △신뢰구축조치 공고화 및 예방외교 발전 강조, △ARF 제도 강화
 - 2011.7월 제18차 ARF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예방외교의 정의, 원칙 및 이행방안 등을 규정한 「ARF 예방외교 작업계획」 채택
 - 2020.9월 제27차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하노이 행동계획 II(Hanoi Plan of Action II)」 채택※ 「하노이 행동계획 II(Hanoi Plan of Action II)」 주요 내용 : △재난 구호, 대테러·초국가범죄, 해양안보, 군축·비확산, ICT 안보, 평화유지, 국방대화 등 7개 협력분야에서의 세부 이행 목표 명시, △ARF 제도 강화, △ISG, SOM 등 각급 회의체별 역할 구체화
- 현재 매년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SOM), △신뢰구축 조치 및 예방외교 회기간 총회(Inter-sessional Support Group Meeting on CBMs & PD),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 △안보정책회의(ARF Security Policy Conference), △국방 관리대화(Defense Officials' Dialogue)를 비롯하여 ARF 차원의 워크샵, 세미나, 훈련 등 개최 중

* △대테러·초국가범죄, △재난구호, △해양안보, △비확산·군축, △ICT 안보(2017년 ARF 외교장관회의시 신설, 2018년 최초 개최)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여

- 1994.10월 싱가포르가 ASEM 창설을 제안하고, 아세안, 한·중·일 동북아 3국 및 EU가 동의함으로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
- 1996.3월 방콕에서 아시아 10개국(아세안 7개국 및 한·중·일)과 EU 15개국 및 EU 집행위원회가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 아시아·유럽간 협력 확대 및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선언하고 대화채널 구축에 합의
※ 7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에 이어 2004년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가 가입, 아세안 10개국이 전부 참여
- 특히 2006.9월 제6차 ASEM 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신규 가입, 2008.10월 제7차 ASEM 정상회의부터 참여 중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APEC) 참여

-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장관급 회의로 시작되어 1993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필리핀·브루나이 등 아세안 선발 6개국이 참여해 오다가 후발국 중 최초로 베트남이 1998.11월 공식 가입, 역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도모
- 그간 2차(1994.11., 인도네시아), 4차(1996.11., 필리핀), 6차(1998.11., 말레이시아), 8차(2000.11., 브루나이), 11차(2003.10., 태국), 14차(2006.11., 베트남), 17차(2009.11., 싱가포르), 21차(2013.10., 인도네시아), 23차(2015.11., 필리핀), 25차(2017.11., 베트남) 총 10차에 걸쳐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 중

역대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현황

차 수	시 기	장 소	주 요 내 용
1	1976.2	인도네시아	「아세안 협력선언」, 「동남아우호협력조약」체결, 아세안 사무국 설립
2	1977.8	말레이시아	아세안 창립 10주년 기념
3	1987.12	필리핀	「마닐라 선언」 및 경협 강화를 위한 4개 협정 서명
4	1992.1	싱가포르	정상회의정례화(매3년), 「공동유효특혜관세협정」체결
5	1995.12	태국	「동남아 비핵지대 조약」체결, 동남아 10개국 정상회의 최초 개최
비공식1	1996.11	인도네시아	라오스·미얀마의 아세안 가입 허용
비공식2	1997.12	말레이시아	한·중·일정상초청, 「아세안 비전 2020」채택
6	1998.12	베트남	「하노이 선언」, 「하노이 행동계획」채택, 캄보디아의 가입 승인
비공식3	1999.11	필리핀	AFTA 가속화, 「아세안 트로이카체제」 도입 한·중·일과의 협력강화 희망 천명
비공식4	2000.11	싱가포르	「아세안 통합계획」추진 합의, 「e-아세안 협정」조인 공식·비공식 회의 구분 없이 연례적으로 정상회의 개최 결정
7	2001.11	브루나이	「반테러선언」, 「HIV-AIDS에 관한 선언」채택
8	2002.11	캄보디아	「对테러공동선언」채택, 「관광진흥협력협정」서명
9	2003.10	인도네시아	「아세안 협력선언 II」 채택
10	2004.11	라오스	「비엔티안 행동계획」채택
11	2005.12	말레이시아	「아세안 현장 제정에 관한 선언」채택
12	2007.1	필리핀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설립 가속화 선언」 및 「아세안 현장 청사진에 관한 세부 선언」채택
13	2007.11	싱가포르	「아세안 현장」서명/「경제공동체 구상에 관한 청사진」채택
14	2009.2	태국	「아세안 공동체 로드맵에 관한 후아힌 선언」 「정치·안보공동체」 및 「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 채택
15	2009.10	태국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설립
16	2010.4	베트남	「기후변화 및 지속적인 경제회복과 발전에 관한 아세안 정상 공동성명」 채택

차 수	시 기	장 소	주 요 내 용
17	2010.10	베트남	「아세안 연계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채택
18	2011.5	인도네시아	「범세계적 공동체속의 아세안공동체에 관한 공동선언」 및 「아세안 평화화해기구(IPR) 설립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19	2011.11	인도네시아	「아세안 공동체 구축 관련 발리선언 III」 채택
20	2012.4	캄보디아	「ASEAN: One Community, One Destiny」 제하의 의장성명 발표
21	2012.11	캄보디아	「아세안 인권선언」 채택
22	2013.4	브루나이	「ASEAN: Our People, Our Future Together」 제하의 의장성명 발표
23	2013.10	브루나이	「아세안 공동체의 Post-2015 비전에 관한 선언」 채택
24	2014.5	미얀마	「Moving forward in Unity to a Peaceful and Prosperous Community」 제하의 의장성명 발표
25	2014.11	미얀마	「아세안 공동체 Post-2015 비전에 관한 네피도 선언」 및 「아세안사무국 역량강화 및 아세안 메커니즘(organ)점검에 관한 선언」 채택
26	2015.4	말레이시아	「온건주의 운동 관련 랑카위 선언」, 「기후변화 및 재난대응 관련 선언」 및 「사람 중심의 아세안을 위한 쿠알라룸푸르 선언」 채택
27	2015.11	말레이시아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아세안 공동체 산하 3개 공동체 부속문서」)」 채택
28 및 29	2016.9	라오스	「하나의 아세안, 하나의 대응에 관한 아세안 선언: 역내 외 재난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 「IAI 3차 작업계획 채택에 관한 비엔티안 선언」, 「아세안 연계성 2025 마스터 플랜(MPAC)의 채택에 관한 비엔티안 선언」, 「아세안 비취학 아동 및 청소년 교육 강화 선언」, 「아세안 문화 유산 협력 강화를 위한 비엔티안 선언」 등 채택

차수	시기	장소	주요 내용
30	2017.4	필리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달성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선언」채택
31	2017.11	필리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에 관한 선언」, 「재난보건 관리에 관한 선언」,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선언」,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를 위한 행동 어젠다」 등 채택
32	2018.4	싱가포르	「회복력있고 혁신적인 아세안을 위한 아세안 정상 비전」, 「사이버 안보 협력에 관한 아세안 정상 성명」채택
33	2018.11	싱가포르	「제14차 아세안 생물다양성 협약 이해당사국 총회 및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공동 성명」, 「아세안 스마트 시티 프레임워크」, 「아세안 청년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 복원의 날 채택에 관한 선언」, 「아세안 회원국 간 제3국 영사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선언」, 「아세안 장애인 권리 주류화 마스터플랜 2025」, 「아세안 공동체의 포용적 성장 및 평등을 위한 친환경 일자리 증진 선언」채택
34	2019.6	태국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관련 아세안 정상 비전 성명」, 「아세안 역내 해양 폐기물 대응 방콕 선언」, 「아세안 문화의 해 2019 정상 선언」, 「아세안의 인도 태평양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채택
35	2019.11	태국	「RCEP 정상공동성명」, 「아세안 백신안보 정상 선언」, 「아세안내 아동권리 증진 공약 재확인 공동성명」, 「2030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교육 협력 증진에 관한 방콕 선언」, 「이민 맥락에서 아동 권리에 관한 아세안 선언」, 「온라인 착취 및 학대로부터 아동 보호 선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아세안 선언」채택, 지속가능개발 관련 아세안 센터 출범, 아세안군의학센터 강화
36	2020.6	화상회의	「단결하고 대응하는 아세안에 관한 아세안 정상 비전성명: 도전 극복 및 성장 유지」,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아세안 선언」, 「디지털 시대 여성 역량 강화에 관한 의장 언론성명」채택

제 2 장

우리나라와 아세안

I. 한-아세안 개관

II. 한-아세안 체제 운영 현황

III. 한-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결과

IV. 한-아세안 협력 현황

I

한-아세안 개관

■ 발전 개요

- 1989.11월 부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수립
- 1991. 7월 완전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
- 1997.12월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 2004.11월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및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가입
- 2005.12월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체결, 「한-아세안 포괄적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 2006.8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체결
- 2007.11월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체결
- 2009.3월 한-아세안 센터 출범
- 2009.6월 대화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제주), 한-아세안 FTA 투자 협정 체결
- 2010.10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 2012. 9월 주아세안 대표부 설립
- 2014.12월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부산)
- 2017.5월 아세안 특사,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파견
- 2017.9월 아세안문화원 개원(부산)
- 2017.11월 신남방정책 천명 및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 발표
- 2019.11월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부산)

■ 정치·외교 관계

-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외교관계 수립
※ 북한도 10개국과 수교
- 양자 방문 및 다자회의 계기 정상·각료급회의의 활발한 개최

■ 교역·인적교류(2019년 기준)

- 교 역 : 1,533.6억불(흑자 374억불 / 수출 953.8억불, 수입 579.8억불)
(제2의 교역대상)
- 투 자 : 95.5억불(제2의 해외투자 대상지역)
- 건 설 : 80억불(제1의 건설수주 시장)

- 방문객 : 양측간 교류인원은 연간 약 1,274만명

- 한국 → 아세안 : 약 1,005만명(제1위 방문지역)
- 아세안 → 한국 : 약 269만명

※ 출처 : 교역(한국무역협회), 투자(한국수출입은행), 건설(해외건설협회),
방문객(한국관광공사)

■ 한-아세안 관계의 중요성

-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부터 긴밀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오늘날 다방면에서 주요 핵심 파트너로 발전
 - 양측간 2009년 FTA가 완결되고, 양자관계는 2010년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인적 교류도 매우 활발
- ※ (2019년 기준) 경제적으로 아세안은 제2의 교역대상이자, 제1의 건설 수주 시장이며, 제2의 해외투자 대상지역, 우리는 아세안의 제5(역내 제외)의 교역대상으로서 서로에게 필수적인 경제 협력파트너
- 아세안은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 중견국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
- 우리나라는 2014년 대화관계 수립 25년을 기념하여 12월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관계’ 지향
- 우리나라는 2017.5월 최초로 아세안 특사를 파견하였으며, 필리핀(2017년 의장국) 대통령, 인도네시아(아세안 사무국 소재) 대통령, 베트남(핵심협력국, 대아세안 교역의 50% 차지) 국가주석 예방
-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 대화상대국 최초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아세안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 ‘아세안문화원’을 개원(2017.9.1.)

-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천명, 아세안에 대한 전례없는 외교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 발표
-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현 가속

■ 한-아세안 협력 기금

- 1990 - 2020년간 약 1억 2,000만불의 협력기금 제공
 - 2019년부터 공여액을 연간 700만불에서 1,400만불로 증액
- 한-아세안간 개발협력,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문화, 학술교류 분야 등에 걸쳐 양측이 합의하는 한-아세안 협력사업 시행
 -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지원에 초점을 두고 집행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발생 및 신남방정책 과제 이행 등 차원에서 지원분야 확대 검토 중
- 2016.12월 한-아세안 협력 기금 전담 관리팀인 「한-아세안 협력사업팀(AKPMT: ASEAN-ROK Program Management Team)」을 자카르타에 설립

■ 아세안의 대한반도 정책

- 아세안 국가들은 한-아세안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 지지 등 우리의 한반도 정책 적극 지지
 - 다만 아세안 일부 국가들은 비동맹 전통의 영향 및 북한과의 외교 관계 고려 등으로 경우에 따라 중립적·실리적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

II

한-아세안 체제 운영 현황

■ 한-아세안 정상회의

- 1997.12월 아세안 창설 30주년 제2차 아세안 비공식 정상회의 계기, 아세안의 초청으로 한·중·일 정상은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별도의 양자(아세안+1) 정상회의도 개최
- 1998.12월 제2차 아세안+3 정상회의 이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한-아세안, 일-아세안, 중-아세안 정상회의도 각각 자동적으로 정례화되어 공동 관심사 협의

■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 1979년부터 아세안 10개국과 대화상대국 10개국이 각각 참여하는 확대외교장관회의(PMC: Post Ministerial Conference) 정례화
- 우리는 매년 7-8월경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최

■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 2003.10월 제7차 아세안+3 정상회의 당시 2004년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 한-아세안 FTA, RCEP등 지역 자유무역협정,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등이 주요 의제

■ 한-아세안 다이얼로그

- 한-아세안간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전 분야를 걸쳐 한-아세안간 협력 관계를 점검,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차관보급 협의체
 - ※ 제18차 한-아세안 다이얼로그(2014.6.18-20, 부산) 계기 안보 전담 대화를 별도 세션으로 개최한 이래, 2018년까지 한-아세안 다이얼로그 계기 안보 대화 개최. 다만, 올해는 화상으로 통합 개최
 - 의제는 지역 안보 등 전통적 안보 이슈 뿐 아니라, 대테러, 식량안보, 에너지, 재난관리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 포함
- 한반도 및 동남아 정세 등 지역정세 및 한-아세안 관계 등 논의

■ 공동협력위원회(JCC : Joint Cooperation Committee)

- 한-아세안간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및 교육 협력 등 제반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매년 상반기 아세안 사무국(자카르타)에서 개최, 2014년에 공동기획심의위원회(JPRC : Joint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에서 공동협력위원회로 명칭 변경
 - ※ JCC Working Group : JCC 준비회의로, 우리측이 공여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각종 협력 사업 이행을 점검

III

한-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결과

1. 최근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 제1차-제1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는 별도 표 참조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09.6., 한국)

-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을 초청하여 특별정상회의 개최(6.1.-6.2., 제주)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아세안을 핵심으로 하는 신아시아 외교의 본격 가동 및 아세안과의 실질 경제협력 강화
- 「한·아세안 투자협정」 체결로 FTA 체제 완결,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완비
- 우리 정부의 「对아세안 3대 정책문서(△개발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인적교류 분야)」 발표로 아세안과 구체 협력 방안 마련
- 「对아세안 지원 확대」 발표
 - △2013-2017년간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5백만불 추가 지원, △향후 7년간 아세안 연수생 총 7,000명 초청, △해외봉사단 총 10,000명 파견 등 「对아세안 ODA 2배 확대」
 - 한-아세안 협력기금 연간 3백만불 → 2010년 이후 5백만불로 증액
 - 정부초청 장학생 2009년 109명 → 2012년까지 200명으로 확대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총 2억불의 기금 가운데 1억불을 아세안에 지원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009.10., 태국)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협력 의지 재확인
- 한-아세안 현인그룹(EPG) 최종보고서 제출
- 한-아세안 행동계획의 「제3차 이행보고서」 채택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010.10., 베트남)

- 한-아세안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아세안 내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합의



○ 제1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011.11., 인도네시아)

- 한-아세안간 소통 강화를 위해 주아세안 대표부 설립 계획 발표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
- 외교장관간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



제1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 제1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012.11., 캄보디아)

- 2012년 설립된 주아세안 대표부를 통해 한-아세안 실질협력 강화 합의
- 2009년 타결된 한-아세안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합의
- 2013년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메콩 지역 지원 강화 계획 발표



제1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 제1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013.10., 브루나이)

-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비전 제시
- 한-아세안 안보 대화 및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 신설 합의
- 2014.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



제1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4.12., 한국)

-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을 초청하여 특별정상회의 개최(12.11.-12.12., 부산)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하고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 구축
- 주요 성과
 -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굳건한 지지기반 공고화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및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확인, △한-아세안 안보 관련 대화 정례화
 -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심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원 확보
 - △양측 중소기업의 상호 시장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Business Council) 출범(2014.12.10.) 및 상설화,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타결을 위한 정치력 결집, △교역액 목표치 확대(2020년까지 2,000억불 달성)
 - 지구촌 행복시대를 위한 개발 경험 공유
 - △아세안 개발격차 해소 및 공동체 건설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 경험 (새마을 운동 등) 공유 및 인적개발 지원, △한-아세안/한-메콩 협력기금 및 對아세안 ODA 규모 확대
 - 쌍방향 교류 및 이해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 기반 마련
 -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한 아세안문화원 2017년 건립, △동남아 국민 대상 비자 간소화, △한-아세안 차세대 인적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비전통 국제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 주도를 통해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추진, △아세안 재난관리 역량 강화 지원 등



2014 제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제17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015.11., 말레이시아)
-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채택 환영
 - 「제2차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 개최 환영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확인
- ※ 2015.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RCEP 공동 성명」 발표



제17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016.9., 라오스)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문 제3차 개정의정서(AKTIGA) 발효 환영
 - 제3차 한-아세안 비즈니스 위원회 개최 환영(8.3., 비엔티안)
 -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협의 진전 확인
- ※ 동 기구 설립 협정문안은 2015.9.22일 기완료,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의
비준에 따라 발효(2018.4.27.)
- 2017년 아세안문화원 개원(부산) 및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 기대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017.11., 필리핀)

- 아세안에 대한 전례없는 외교 우선순위 부여하고,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 발표
- ※ 동 구상은 △3P(사람, 상생번영, 평화) △아세안 연계성참여 확대
△협력기금 증액 등으로 구성
- 무역, FTA, 중소기업 지원, 아세안 공동체 출범 지원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관계의 심화 및 확대 합의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018.11., 싱가포르)

- 한-아세안 간 발전 방향 및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특히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합의
 -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주도해 온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노력들을 소개
 - 2020년까지 상호 교역액 2,000억불 달성을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언급
- ※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참여, △인프라 투자 확대, △인적 역량 강화, △중소기업간 협력 등의 분야 추진키로 합의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11., 부산)

- 1989년 한아세안 부분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 대화상대국 중 최초로 3번째 특별정상회의를 개최
- 제1세션(한-아세안 협력), 제2세션(연계성) 등 공식 회의에 이어 한반도 문제 관련 오찬 회의 개최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비전성명 및 공동의장성명 채택, 금융, 산업혁신, 표준화, 스타트업,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제도화 합의
- 상생번영 관련, ①FTA 네트워크 확대 ②제조업 및 첨단산업, 과학 기술 협력 ③스마트 시티 등 연계성 협력 ④금융, 해양수산, 항만 및 농업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한 ①비자 제도 개선 ②항공자유화 ③다문화 가족 지원 ④장학사업 확대 ⑤직업교육 등 인적자원개발 ⑥보건 분야 협력 강화
- 평화, 안보 분야에서 ①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확보 ②국방 및 방산 협력 ③전통,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증진 ④사이버 안보 ⑤재난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을 평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관련 아세안의 관점지지
- 또한 향후 30년간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공동비전 성명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의 협력 기반 마련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 역대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차수	시기	장소	주요 내용
1	1997.12.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한-아세안간 경제협력 확대와 對아세안 원조증대 방침을 전명 ○ 아세안측은 한반도 평화정착 및 한-아세안 협력 관계의 확대·발전을 희망
2	1998.12.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한-아세안 협력기금(200만불) 제공, 유·무상 원조 확대, 한-아세안 문화산업 발전센터 설치 등 협력사업의 지속 이행을 약속 ○ 아세안측은 우리의 메콩강 개발 참여, 건설 분야 합작 및 개발원조 확대 등을 요청
3	1999.11.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확대, 인적자원 개발 공조 등 對아세안 협력 강화 방침을 표명 ○ 아세안측은 對韓무역역조 시정, 열대과일 검역 절차 개선 등을 요구
4	2000.11.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1.67억불 규모의 對아세안 원조·문화·인적교류 확대, IT 분야연수생 1,000명초청, 풍토병퇴치를 위한 백신 공동연구 등을 제의 ○ 아세안측은 메콩강 개발 등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고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속적 지지 표명
5	2001.11.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이 인터넷 네트워크·웹디자인 교육, 예술인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신규 제안 ○ 아세안은 IT·문화·청소년분야 협력 강화를 희망하면서 우리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지지
6	2002.11.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민간경협위 재개에 합의하고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관련 3·4개 사업에 700만불 지원을 약속 ○ 아세안은 개발 원조 확대 요청, FTA 협상 추진을 희망
7	2003.10.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개발협력 봉사단(KOICA) 파견을 약속하고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신설 및 한-아세안 FTA 추진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을 제안 ○ 아세안은 메콩강 유역 개발·싱가포르·쿤밍간 철도사업 참여 요청 및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가입 희망

8	2004.11.	라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 선언」 채택,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가입 및 FTA 협상 개시 선언, 한-아세안 협력기금 증액(2백→3백만불) ○ 아세안은 유·무상 원조 확대를 요청
9	2005.12.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한-아세안 행동계획」 채택, IT·중소기업 분야 지원 및 유·무상 원조 확대 약속 ○ 아세안측은 선·후발 회원국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을 요청
10	2007.1.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한-아세안 센터」 설립 제안, 한-아세안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촉구 ○ 아세안측은 IT, 에너지 분야 및 개발협력 관련 협력 증진 희망 ○ 한-아세안 행동계획의 「제1차 이행보고서」 채택
11	2007.11.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대아세안 개발협력 강화 입장 및 역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협력 지속 추진 의사 표명 ○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 서명 ○ 「한-아세안 FTA 서비스 협정」 서명 ○ 한-아세안 행동계획 「제2차 이행보고서」 채택 ※ 2008년 정상회의는 당시 의장국이었던 태국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정세불안으로 인해 무산

IV

한-아세안 협력 현황

1. 정치·외교 분야 협력

- 우리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모두 수교하고, 1989.11월 부분대화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91.7월 정치·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완전 대화관계 구축
 - * 북한도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단교(1983.11.)했던 미얀마와 복교(2007.4.) 함으로써 아세안 10개국과 수교
- 연례적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한-아세안 다이얼로그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아세안과 정기 협의 채널 유지
- 한-아세안 정상간 교환 방문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측의 경우 아세안+3 및 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 계기 아세안 지역 순방
-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획기적 협력 강화를 위한 2017.11월 신남방 정책 천명 이후, 활발한 정상 교류를 전개 사상 처음으로 취임 후 2년 만에 아세안 10개국 모두 방문

【우리 정상의 아세안 방문(2003~)】

- 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2003.10.)
- 베트남(2004.10.), 라오스(2004.11.)

- 말레이시아·필리핀(2005.12.)
- 베트남·캄보디아(2006.11.), 인도네시아(2006.12.)
- 필리핀(2007.1.), 싱가포르(2007.11.)
- 인도네시아(2009.3.), 태국(2009.4.) 태국·베트남·캄보디아(2009.10.), 싱가포르(2009.11.)
- 싱가포르(2010.6.), 베트남(2010.10.),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2010.12.)
- 인도네시아·필리핀(2011.11.)
- 미얀마(2012.5.), 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2012.11.)
- 베트남(2013.9.), 인도네시아·브루나이(2013.10.)
- 미얀마(2014.11.)
- 싱가포르(2015.3.), 말레이시아·필리핀(2015.11.)
- 라오스(2016.9.)
-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2017.11.)
- 베트남(2018.3.), 싱가포르(2018.7., 2018.11.)
- 브루나이(2019.3.), 말레이시아·캄보디아(2019.3.), 태국·미얀마·라오스(2019.9.)

【 아세안 정상의 한국 방문(2003~)】

-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2003.6.), 탁신 태국 총리(2003.8.), 판 반 카이 베트남 총리(2003.9.)
- 압둘라 말레이시아 총리(2004.8.)
- APEC 정상회의(2005.11.) 계기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방한
- 훈센 캄보디아 총리(2006.3.)

-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2007.7.), 농득마잉 베트남 당서기장(2007.11.)
- 훈센 캄보디아 총리(2008.2.), 부아손 라오스 총리(2008.6.)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09.6.) 계기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한(동계기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폴 정상 공식방한)
- 중 베트남 총리,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G20계기 방한(2010.11.)
- 나집 말레이시아 총리(2011.4.), 미잔 말레이시아 국왕(2011.7.)
-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잉락 태국 총리, 응우옌 떤 중 베트남 총리(2012.3.), 통심 라오스 총리(2012.7.), 떼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2012.10.)
- 잉락 태국 총리(2013.2.),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2013.10.), 춤말리 라오스 대통령(2013.11.),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2013.12.)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4.12.) 계기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한(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응우옌 떤 중 베트남 총리 공식방한, 볼카야 브루나이 국왕 국빈방한)
-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2016.5.)
-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2018.6.),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2018.9.)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11.) 계기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한(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 공식방한, 볼카야 브루나이 국왕 국빈방한)

○ 아세안측은 이러한 협력관계를 배경으로 對韓 협조자세 견지

- ASEM·APEC·ARF 등 다자협의체에서도 협력 증진 희망

○ 특히 우리의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서명, 「한-아세안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2004.12.),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시 「신아시아 외교」 발표(2009.3.),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2009.6.) 및 「한-아세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2010.10.), 주아세안 대표부 설립(2012.9.),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2014.12.),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 발표(2017.11.),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 회의」 개최(2019.11.) 등으로 협력 관계가 심화·발전되는 추세

2. 경제·통상 분야 협력

■ 교역 현황

- 한-아세안간 총 교역은 2009년 세계 금융·경제 위기 이후 지속적인 회복 추세에서 2015-2016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회복세로 전환됨

한-아세안 교역현황

(단위: 억불,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교역	972 (29.7)	1,249 (28.4)	1,310 (4.96)	1,353 (3.28)	1,380 (2.0)	1,199 (-13.1)	1,188 (-0.8)	1490.7 (25.4)	1,597.4 (7.2)	1,533.6 (△3.99)
수 출	531 (29.8)	718 (35.0)	791 (10.1)	820 (3.67)	846 (3.17)	749 (-11.4)	745 (-0.4)	952.5 (27.8)	1,001.1 (5.1)	953.8 (△4.7)
수 입	440 (29.5)	531 (20.5)	519 (-2.2)	533 (2.7)	534 (0.19)	450 (-15.7)	443 (-1.6)	538.2 (21.4)	596.3 (10.8)	579.8 (△2.8)
수 지	90	186	272	287	312	299	302	414.3	404.8	375

※ 출처 : 한국무역협회(IMF),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 국별(2019년 기준)로는 베트남이 약 704억불로 1위를 기록, 이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순

한-아세안 국별 교역규모

(단위: 백만불, 2019년 기준)

순위	국가	교역	수출	수입
1	베트남	70,392	48,304	22,088
2	싱가포르	19,504	12,769	6,735
3	말레이시아	18,448	9,023	9,425
4	인도네시아	16,731	7,752	8,979
5	태국	13,214	7,763	5,451
6	필리핀	11,972	8,233	3,739
7	미얀마	1,374	690	684
8	캄보디아	1,031	702	329
9	브루나이	586	72	514
10	라오스	115	73	42
	합계	153,367	95,381	57,986

※ 출처 : IMF, 한국무역협회

■ 투자 진출

- 2009년 약 21.5억불에서 2019년 약 95.5억불로 증가

우리의 對아세안 투자추이 (투자금액 기준)

(단위 : 백만불)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태국	31	84	584	87	150	182	109	112	106	95	93
말레이시아	119	1,564	164	729	457	136	60	202	410	110	231
필리핀	130	233	208	938	457	94	154	166	564	173	203
인니	385	927	1,299	997	455	726	699	661	677	497	963
싱가포르	276	416	1,047	395	553	980	1,458	1,179	1,052	1,570	3,026
브루나이	1	2	3	1	2	0	0	1	1	1	0
미얀마	351	197	423	328	513	312	244	363	280	213	279
라오스	31	18	14	27	67	36	27	59	58	37	69
베트남	630	882	1,056	982	1,152	1,660	1,612	2,374	1,973	3,162	4,473
캄보디아	192	122	103	96	82	65	43	215	137	276	212
합계	2,146	4,445	4,901	4,580	3,888	4,191	4,406	5,332	5,258	6,134	9,550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국별(2019년 기준)로는 투자금액 기준 베트남(약 45억불), 싱가포르(약 30억불), 인도네시아(약 9.6억불), 미얀마(약 2.8억불) 등의 순

우리의 对아세안 투자순위 (국별 투자금액 순)

(단위 : 백만불, 2019년 기준)

순위	국가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1	베트남	915	4,473.0
2	싱가포르	152	3,025.7
3	인도네시아	101	962.6
4	미얀마	41	279.3
5	말레이시아	34	231.2
6	캄보디아	27	212.5
7	필리핀	42	202.8
8	태국	70	93.5
9	라오스	9	69.4
10	브루나이	3	0
	총 합	1,394	9,550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2019년 기준)로는 제조업 40.8억불, 금융 및 보험 25.9억불, 도매 및 소매업 6.3억불 등의 순

우리의 對아세안 투자순위 (업종별)

(단위 : 백만불, 2019년 기준)

순위	국가	투자금액
1	제조업	4,086
2	금융 및 보험업	2,599
3	도매 및 소매업	632
4	부동산업	596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5
6	건설업	257
7	정보통신업	236
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50
9	숙박 및 음식점업	108
10	운수 및 창고업	103
11	기타	185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한-아세안 FTA

○ 협상 개요

- 2004.11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①기본 협정 및 분쟁해결제도, ②상품, ③서비스·투자 분야를 순차적으로 타결키로 하고 협상 진행
- 협상별 주요 연혁
 -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 협정 : 2005.12월 서명, 2007.6월 발효
 - 상품협정 : 2006.8월 서명, 2007.6월 발효
 - 서비스협정 : 2007.11월 서명, 2009.5월 발효

※ 태국은 2009.2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동 협정에 서명

 - 투자협정 : 2009.6월 서명, 2009.9월 발효

○ 한-아세안 FTA 발효 전후 교역 증가 현황

- 2019년 교역규모는 2007년에 비해 약 2.1배로 증가(수출 : 2.5배, 수입 1.7배), 이는 동기간 우리의 전체 교역 증가율을 상회
- 아세안은 한국의 제2대 교역상대지역으로 꾸준히 유지 중

한-아세안 FTA 발효 전후 對아세안 및 對세계 교역 증가 현황 비교

(단위 : 억불)

금액 구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교역액		증가율			
	2007	2019		2007	2019		2007	2019				
對아세안	387	954	146%	331	579	75%	718	1533	113%			
對세계	3,685	5,415	47%	3,568	5,019	41%	7,253	10,434	44%			

※ 출처 : IMF, 한국무역협회 (FTA 발효년도 : 2007년)

- 2015.8월 상품협정 개정(3차 개정 의정서)
 - 무역원활화 확대 :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 사전심사제도, 투명성 강화 등
 - 양허표 첨부 : 당초 협정상 적용키로 한 관세인하일정(2016.1.1. 이후) 첨부
- 2016.8월 제1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자유화 협상을 공식화
- 2017.9월 제14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 공동언론발표문에 그간 한-아세안 FTA의 성과를 평가하는 특별 조항 채택
- 2019.2월 한-아세안 FTA 제17차 이행위원회에서 추가자유화 협상을 위한 교역자료 및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합의
- 2020.4월 아세안 측은 베트남 등 아세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아세안 마이너스(-) X」 접근방법을 제안

3. 개발 협력

■ 지원 실적

- (무상) ASEAN 회원국에 대해 1987-2018년간 총 20.4억불 지원
- (유상) ASEAN 회원국에 대해 1987-2018년간 총 28.5억불 지원

한국의 對아세안 ODA 지원 현황

(단위 : 백만불)

		'87~'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총계	계	1,186.89	234.71	325.61	379.18	435.47	413.87	505.90	450.72	497.03	457.88	4,887.26
	무상	494.61	113.46	126.67	147.07	157.84	191.53	191.12	207.64	193.56	216.49	2,039.99
	유상	692.28	121.25	198.94	232.10	277.62	222.35	314.78	243.07	303.47	241.39	2,847.25
라오스	계	88.29	27.75	33.48	23.52	27.12	28.98	88.23	37.66	56.20	72.53	483.76
	무상	47.55	13.65	15.53	13.09	13.33	19.77	22.45	27.80	28.06	34.42	235.65
	유상	40.74	14.10	17.95	10.43	13.79	9.21	65.78	9.85	28.14	38.11	248.1
말레이시아	계	7.11	1.73	1.85	0.43	0.14	0.34	0.49	0.37	0.40	0.34	13.2
	무상	7.11	1.73	1.85	0.43	0.14	0.34	0.49	0.37	0.40	0.34	13.2
	유상	-	-	-	-	-	-	-	-	-	-	-
미얀마	계	101.03	5.46	7.86	9.04	14.80	25.48	23.91	47.31	77.61	38.77	351.27
	무상	31.16	5.46	7.86	9.04	14.80	25.48	22.82	33.68	35.58	34.38	220.26
	유상	69.87	-	-	-	-	-	1.10	13.63	42.03	4.38	131.01
베트남	계	348.79	101.21	146.45	207.59	242.46	187.05	225.93	185.40	187.73	157.99	1,990.6
	무상	143.83	32.45	30.08	33.89	35.95	50.34	51.19	51.94	50.87	57.92	538.46
	유상	204.96	68.75	116.37	173.70	206.51	136.71	174.74	133.46	136.86	100.08	1,452.14
인도네시아	계	286.09	28.16	31.68	44.50	39.17	29.67	46.58	50.47	57.87	53.95	668.14
	무상	109.03	19.04	17.89	23.20	24.28	23.53	18.95	21.59	16.93	20.43	294.87
	유상	177.06	9.12	13.79	21.30	14.89	6.14	27.64	28.89	40.94	33.51	373.28

		'87~'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캄보디아	계	180.29	37.33	62.23	58.11	63.85	72.53	69.50	57.32	71.13	65.23	737.52
	무상	58.94	19.09	23.14	35.47	32.64	35.94	37.47	36.93	31.57	31.23	342.42
	유상	121.35	18.24	39.09	22.64	31.21	36.59	32.02	20.39	39.56	34.00	395.09
태국	계	25.02	2.49	4.47	2.89	3.34	3.44	4.73	8.83	5.16	4.16	64.53
	무상	25.02	2.49	4.47	2.89	3.34	3.44	4.73	8.83	5.16	4.16	64.53
	유상	-	-	-	-	-	-	-	-	-	-	-
필리핀	계	150.22	30.58	37.58	33.10	44.59	66.39	46.53	63.34	40.92	64.92	578.17
	무상	71.92	19.55	25.84	29.06	33.36	32.69	33.03	26.49	24.99	33.61	330.54
	유상	78.30	11.04	11.74	4.04	11.22	33.70	13.50	36.85	15.93	31.31	247.63
브루나이	계	0.02	-	-	-	-	-	-	-	-	-	0.02
	무상	0.02	-	-	-	-	-	-	-	-	-	0.02
	유상	-	-	-	-	-	-	-	-	-	-	-
싱가포르	계	0.03	-	-	-	-	-	-	-	-	-	0.03
	무상	0.03	-	-	-	-	-	-	-	-	-	0.03
	유상	-	-	-	-	-	-	-	-	-	-	-

1) 총지출기준(당해년도 지출 총액)

2) 2020년 현재 브루나이, 싱가포르는 ODA 대상국이 아님(1996년 수원국 출업)

(자료: OECD, Stat)

■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지원

- 아세안 선발 6개국과 후발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간의 개발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 아세안은 10개 대화상대국을 포함한 여타 공여국들에 지원 요청

※ IAI :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 IAI 1차 지원(2003-2007) 실적

대상국가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사업명 (기간/금액)	아세안 5개국 철도연결 타당성조사사업 (2004-2006/ 120만불)	상품·서비스 무역능력 배양 (2004-2005/ 87만불)	전자정부 구축 지원사업 (2004-2005/ 95만불)	정보통신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지원사업 (2004-2005/95 만불)	정보통신 입법지원사업 (2004-2005/ 86만불)

○ IAI 2차 지원(2008-2012) 추진 현황

- 2007.11월 싱가포르 개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5년간 500만불 추가 지원계획 발표
- 2010.8월 아세안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사업 지원 확정
- 2012.8월 CLMV 대상 이러닝 센터구축, 연수 사업 추진

○ IAI Work Plan III(2016-2020) 참여 계획

- 2016.9월 IAI Work Plan III 채택 및 6차 IAI-대화상대국 협의회 계기 IAI 절차 사후승인→사전승인으로 변경
- 현재 아세안사무국이 신청한 TVET(기술직업 교육훈련) 분야 관련 사업 및 비취학아동(OOSC: Out of School Children) 유연교육 관련 사업 참여 추진 중

■ IT 분야 기술지원 확대

- 아세안은 정보·통신 분야 발전 및 선발·후발 회원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선진 자본·기술 도입과 각국으로부터의 지원·협력 확보에 주력
- 우리는 IT 경험과 노하우를 아세안이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 구축 추진

- ※ 우리는 아세안에 대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기술지원 자문, 아세안 국가 IT 전문가 초청연수, IT 전문가 파견, IT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정보 격차 해소 지원활동 전개

4. 한-아세안 협력기금

■ 개요

-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 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1990년 조성되었으며, 동 기금을 활용하여 한-아세안 간 개발협력, 인적자원개발, 문화·학술 교류 등에 걸쳐 양측이 합의하는 각종 사업 시행 중
- 1990년 이래 2020년까지 약 410여건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한-아세안 협력기금 우선협력분야(교육, 문화, 환경)을 중심으로 사업 선정 중
- 연간 700만불 규모로 운영되던 기금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 이후 1400만불로 증액되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공여액은 약 1억2천만불(국제기구 분담금으로 아세안 사무국에 송금하여, 한-아세안 양측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 등에서 사업 신청 가능)

■ 추진경위

- 1989.11월 한-아세안 부분 대화체제 발족시 1990년부터 5년간 연 100만불씩 총 500만불의 특별협력기금을 제공하기로 합의
- 1991.7월 한-아세안 관계가 완전 대화체제로 격상되어 협력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협력기금 규모를 1992년부터는 연간 200만불로 증액하기로 결정

- 2004.11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2005년부터 연간 300만불로 증액 공여
- 2009.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2010년부터 연간 500만 불로 증액 공여 약속
- 2014.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2015년부터 연간 700만 불로 증액 공여 약속
- 2015.8월 대규모·장기 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운영방식을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관(ToR) 채택
- 2016.12월 한-아세안 협력사업팀(AK PMT*) 자카르타에 공식 개설
* 한-아세안 국적의 개발협력 전문가로 구성
- 2017.6월 한-아세안 협력기금 공식 웹사이트 개설
- 2019년부터 공여액을 연간 700만불에서 1400만불로 증액
* 한-아세안 협력기금 홈페이지(www.aseanrokfund.com)

■ 주요 사업

- (교육 분야) △아세안 역내 이동을 통한 직업기술훈련, △아세안 석사 교원의 박사과정 장학 프로그램, △고용노동 정책 성주류화,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의 기초교육 접근성 강화
- (문화 분야) △아세안 정체성 심포지엄, △유네스코 문화유산 디지털 컨텐츠 개발, △한-아세안 영화공동체 프로그램, △한-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한-아세안 문화·예술 교류, △한-아세안 청년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 (환경 분야) △아세안 재난 관리 전문가 인증기준 개발, △재난 분야 공무원 역량강화

- (기타 분야) △아세안 코로나19 진단역량강화 사업, △ 아세안 연계성을 위한 아세안 공공데이터 사전개발



아세안 10개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디지털 컨텐츠 개발(2019~2021)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2019~2021)



아세안 코로나19 진단역량 강화 지원사업(2020~2021)

■ 사업효과

- 한-아세안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양자간 관계를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데 큰 역할
- 우리나라가 축적해온 기술을 아세안에게 전수하고 공유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에게 선진 기술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 양측 청소년, 공무원, 학자 및 사회 지도층 등의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한-아세안 관계 강화 토대 마련
- 특히 올해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위기상황시 모범 사례, 훈련 및 기술을 공유하여 아세안의 대처능력 및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 향후 추진 계획

-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및 「한-아세안 행동계획(Plan of Action)」 등을 고려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
- 신남방정책 3P(사람, 상생번영, 평화) 전략과 아세안측 수요를 연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며 단발성 사업이 아닌 다년도의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된 프로그램형 사업이 아세안측에서도 제안될 수 있도록 관심 요청
- 또한 한-아세안 협력기금의 방향과 전략을 담은 프레임워크(New Framework for the ASEAN-ROK Cooperation Fund(AKCF) 2021-2025)을 프로그램형 사업 추진, 보건협력의 중요성 등을 반영하여 개정 완료 예정

5. 한-아세안 센터

■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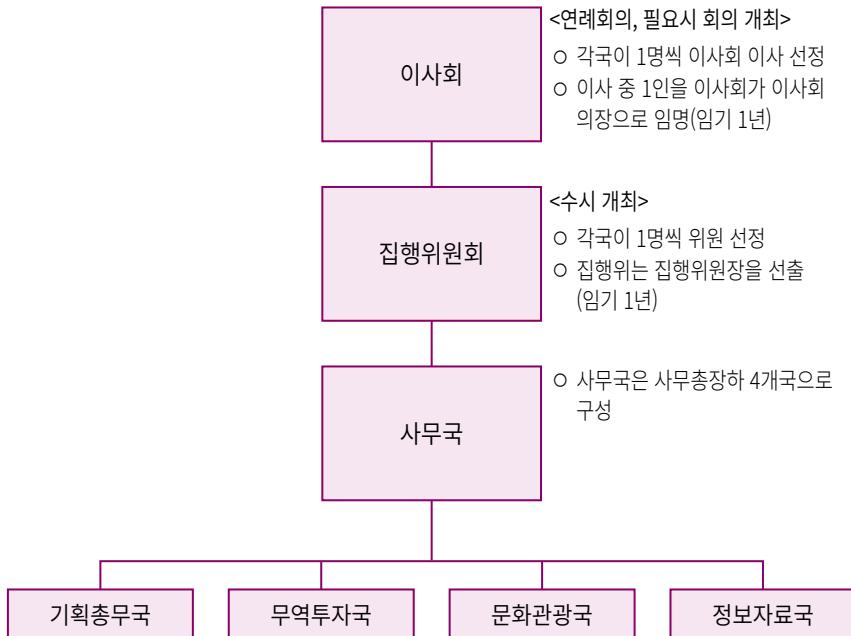
-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간 교역증대, 투자촉진, 관광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 연혁

- 2007.11월 제1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싱가포르)계기 「대한민국과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
- 2008.12월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 발효
- 2009.3월 한-아세안 센터 창립이사회 개최 및 조영재 초대 사무총장 취임
- 2012.3월 정해문 제2대 사무총장 취임
- 2015.3월 김영선 제3대 사무총장 취임
- 2018.4월 이 혁 제4대 사무총장 취임

■ 한-아세안 센터 조직

- 이사회, 집행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



※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그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최종 임명(임기 3년, 중임 가능)

■ 2020년 주요 사업

- (무역·투자 분야) △한-아세안 소비재 산업 증진, △인프라 분야 협력 증진, △4차 산업분야 협력 촉진
- (문화·관광 분야) △한-아세안 문화·관광 교류, △아세안 문화·관광 진흥, △아세안 관광역량 강화 지원
- (홍보·인식제고·인적교류 분야) △대외홍보 및 정보자료 제공, △한-아세안 청년 인식제고 강화 및 교류 지원



한-아세안 관광활성화 세미나



아세안 청년 커리어 멘토십 프로그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 일정이 조정되거나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

구 분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무역투자	한-아세안 소비재 산업 증진	아세안 소비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 한-아세안 우수 디자인전 / 아세안 간편식(HMR) 전시회 / 아세안 가구 전시회 등
	인프라 분야 협력 증진	제 8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등
	4차 산업분야 협력 촉진	한-아세안 온라인 콘텐츠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 한-아세안 바이오 파트너링 워크 한-아세안 로봇 포럼 / 한-아세안 스타트업 워크 / 국제 게임전시회 등
문화관광	문화·관광 교류	아세안 문화관광 쇼케이스 / 아세안 관광장관회의 및 NTO 회의
	문화·관광 진흥	아세안 관광 홍보 파빌리온 '아세안 여행' 온/오프라인 홍보 한-아세안 팸(Familiarization) 투어(온라인)
	아세안 관광역량 강화 지원	한-아세안 관광활성화 웨비나 (포스트 코로나와 스마트 투어리즘) 한-아세안 문화관광 워크숍(온라인)
정보자료	청년 인식제고 및 교류	아세안 청년 대화(Hey 아세안)/ 아세안 커리어 맨토쉽 프로그램 / 한-아세안 학술에세이 공모전/ 주한 아세안 청년 네트워크(AYNK) 및 주한 아세안 교수 협의회 프로그램(CAPK) / 아세안 스쿨투어 프로그램 등
	대외홍보 및 정보자료 제공	인터뷰, 기고, 특집기사 및 방송 기획 / 연례 통계집, 뉴스레터 및 아세안 관련 자료(아세안 Issue) 발간 / 홈페이지, SNS, 블로그 기자단 운영
기획총무	대외협력	한-아세안 센터(AKC), 중-아세안 센터(ACC), 일-아세안 센터(AJC)간 협력 강화
	성과평가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및 주요사업 성과평가

6. 아세안문화원

■ 개관

- 2014년 한-아세안 수교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간 다양한 학술·문화·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제고 및 공동체 인식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 공식 웹사이트(ach.or.kr) 운영
 - 아세안 10개 완전 대화상대국 가운데 非아세안 회원국에 설립된 최초·유일의 아세안 문화 복합 공간

■ 연혁

- 2014.12월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아세안문화원 건립추진 결정
- 2017.9월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 기념 아세안문화원 개원 (부산)
상설 전시실(아세안 국가별 섹션, 한-아세안 갤러리, VR체험실 등), 개원 기념 특별 프로그램 추진(기획 전시 ‘화혼지정 – 결혼 문화를 통해 본 아세안’,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ATO) 공연 등)
- 2017.9월-2019년 한-아세안 쌍방향 문화 사업(기획전시, 공연, 축제), 학술 및 인적교류 추진(연45건 내외)
기획전시(아세안의 사람과 삶, 놀이하는 아세안, 아세안의 삶과 물), 공연(한-아세안 플루트 페스티벌, 싱가포르 페라나칸 무용공연, 캄보디아 서커스 등), 알기쉬운 아세안 복합 문화체험, 아세안 기획영화·

강좌·세미나, 우리국민·외국인 참여 사진공모전(아세안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아세안), 2019년 도슨트 투어(아세안을 엮다, 아세안을 잇다) 등

- 2019.9월 태국 방콕 아세안문화센터(ASEAN Cultural Center)와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주요 사업

- (문화교류) △아세안 문화 전시(상설전, 기획·협력전) △아세안 문화 공연, △아세안 문화 영화(정기·기획 영화제) 등
- (학술·교육 교류) △아세안 이해 제고 교육, △강좌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아세안 문화·학술 포럼 및 세미나 활성화, △한-아세안 청년/차세대 교류 및 다문화거주자 교류 활성화, △아세안 정보자료실 운영 등

■ 아세안문화원 주요 행사

- 아세안문화원 사진영상 공모전 기획 전시회
- 교환일기: 한국 속의 아세안, 아세안 속의 한국
- (상설 온라인 전시) 아세안을 엮다, 아세안을 잇다
아세안 10개국이 자국의 주요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공예품 전시
-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아세안 국별 여름방학 프로그램 ‘슬기로운 여름 방학’ 실시
-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협업하여 아세안 언어강좌 및 문화강좌 실시



아세안문화원 개원식



아세안문화원 개원식 - 상설전시 투어



[전시] 개원 기념 기획전시 “화훈지정”



[공연] 한-아세안 플루트 페스티벌



개원 1주년 기념식



개원 1주년 기념식 - 기획전시 “놀이하는 아세안”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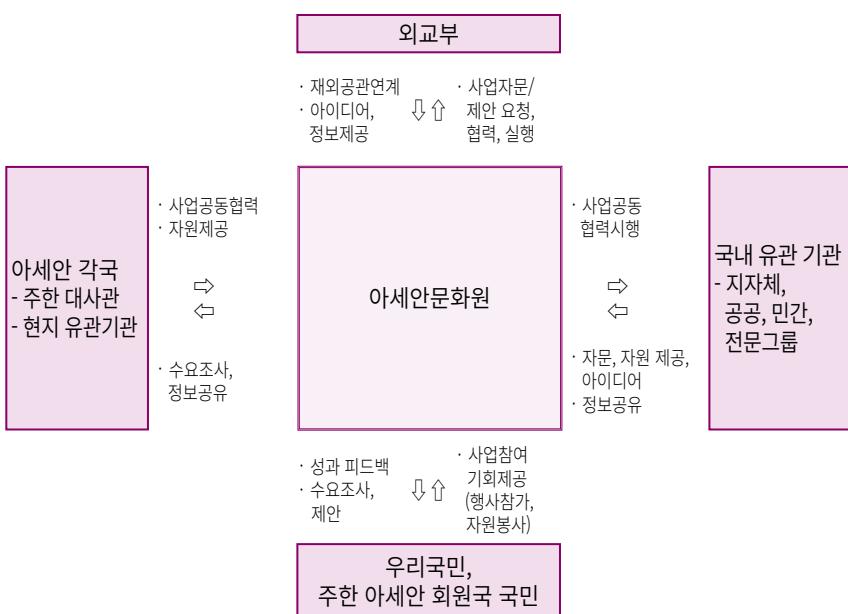
[문화체험] 주한베트남대사부인과 함께하는 베트남 키친



[문화체험] 태국 페스티벌 - 셰프 후토의 태국 음식 시연회



■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업체계도



■ 2019 추진사업 내역

구분	내용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전) 우리국민·외국인 참여 ACH ASEAN 사진·영상 공모전 및 우수작 전시 “공감하는 시선(ASEAN Gaze)”(1.28.-3.10.) ○ (기획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아세안의 삶과 물(Splash ASEAN)” (6.18.-9.22.) ○ (기획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아세안공예: 전통의 진화 (ASEAN Crafts: From Heritage to the Contemporary)”(10.8.-11.17. 청주, 10.8.-2020.1.15. 부산) ○ (상설전) 한-아세안 관계 및 아세안 국가별 문화소개 코너 및 아세안 문화유산 VR실 운영
공연 ·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2019 아세안 문화의 해(Year of ASEAN Culture)기념 태국 아세안문화센터와의 협력 공연 “비바 아세안(Viva ASEAN)”(10월 말 서울/부산/청주/광주) ○ 한-메콩 정상회의 기념 메콩지역 문화상품 미니페어 및 부대 프로그램 “메콩장터: 수공예품과 디자인상품(Bazaar Mekong: Handicraft and Design Goods)”(11.23.-11.27.) ○ 주한아세안공관/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공연(5월 ‘캄보디아 서커스와 태국 마임’)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영화제 “2019 아세안 영화주간 – 아세안 영화, 현재를 만나다(2019 ASEAN Cinema Week - ASEAN CINEMA NOW!)” (11.1.-2020.상반기, 전국 주요도시 순회) ○ 한-아세안 애니메이션·어린이 영화제 “영화가 있는 세상(Bridging the World Through Film)”(6.1.-7.21.) ○ 국가별 특별 영화상영회(주한필리핀대사관 협력 영화제, 9.20.-22.)
교육 학술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문화체험 및 교육 “알기쉬운 아세안(Easy Access ASEAN)”(월별, 연중) ○ 실용 아세안 언어 강좌 “아이 캔 스피크 아세안(I Can Speak ASEAN)” (아세안 5개 국어, 초·중급 수준별, 상·하반기 각 12강) ○ 행사 계기 특강, 청소년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단체방문 프로그램, 정보자료실 운영
인적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한류팬 초청 사업(한류팬, SNS 및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초청) ○ 주한 아세안 유학생 교류 및 활동 지원(한-아세안 차세대 네트워크(AKF) 운영 등) ○ 다문화 거주자 인적교류 촉진(2019 아세안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8.3.-11.11., 한국/베트남), 방문/자조모임 지원 등) 아세안 학술/연구/다문화/문화교류 등 지원 (시설 대관 등) ○ 한-인도네시아 영리더스ダイ얼로그(2018 인니 정상 국빈방한 후속성과 사업)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Brunei | Cambodia | Indonesia | Laos | Malaysia | Myanmar | Philippines | Singapore | Thailand | Viet Nam

제 3 장

아세안+3 체제

I. 아세안+3 개관

II. 아세안+3 체제 운영 현황

III. 아세안+3 정상회의 주요결과

IV. 아세안+3 주요 협력 현황

I

아세안+3 개관

■ 발전 경위

- 1990.12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미국·호주 등을 제외한 아·태 지역 국가들만의 경제협의체 결성을 목표로 「동아시아 경제회의」(EAEC : East Asian Economic Caucus) 창설 주장
- 동아시아 국가간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 의존 심화에 따라 미국의 아·태 경제질서 주도 등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경제권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 확산
- 1997.12월 아세안은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아시아 금융위기 등 초국가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중·일 3개국 정상을 동시 초청,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아세안+3 체제 발족
 - 세계화 진전과 지역협력 강화의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동남아와 동북아의 구분 없이 동아시아의 큰 틀 속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아세안+3 정상회의 체제가 정례화
 - 이에 더하여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및 아세안+3 SOM 등의 협의체가 개설되어 아세안+3간 기능적 협력이 보다 강화

■ 회원국 현황(13개국)

- 아세안 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 아세안+3 국가 주요 지표

(2019년 기준)

국명	항목	인구	GDP	수출	수입	교역
		백만명	천억불	십억불	십억불	십억불
한국	52	16.3	542	504	1,046	
중국	1,405	141.4	2,464	2,068	4,532	
일본	126	51.5	706	748	1,454	
아세안	654	31.1	1,401	1,501	2,902	
합계	2,237	240.3	5,113	4,821	9,934	

※ 출처 : IMF, 한국무역협회

※ 아세안과 한·중·일(2019년 기준)

- 아세안 회원국의 한·중·일 3국과의 교역액은 8,370억 불로 전체 교역액의 31.3% 차지

II

아세안+3 체제 운영 현황

1. 참석 수준별 회의체 종류

■ 아세안+3 정상회의

- 1997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매년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 ※ 2008년 정상회의는 당시 의장국이었던 태국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정세불안으로 인해 무산
- 주요 의제는 아세안+3 협력 현황 점검 및 미래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 의장국은 아세안 10개국이 매년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면서 수임
 - ※ 2013년 브루나이, 2014년 미얀마, 2015년 말레이시아, 2016년 라오스, 2017년 필리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태국, 2020년 베트남

■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시 채택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8조에 따라 2000년부터 매년 7월경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개최
- 주요 의제는 아세안+3 협력 현황 점검을 비롯한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 여타 주요 각료회의

가.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시 채택한 「동아시아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8조에 따라 2000년부터 매년 1회 개최
- 아세안+3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의견 교환

나.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 1997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시 재무장관들에게 역내 금융 협력 강화를 촉구함에 따라, 1999년 처음으로 아시아개발은행 연례 회의시 부대행사로 개최한 이래 연 1회 개최 정례화
-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및 강화,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 역내 통화스와프, 거시경제 조사기구 모니터링 강화, 자본유출입 공동 대응 방안 등 논의

다.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 2000.7월 필리핀이 기존 아세안 농림장관회의를 아세안+3 차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2001.10월 제1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개최
- 아세안+3 농림분야 협력사업 및 식량안보 대응방안, 농업분야 개발 격차 해소 등 논의

라.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 기존 아세안 노동장관회의에 한·중·일 노동장관을 초청함으로써 2001.5 월 제1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개최
- 아세안+3 노동분야 협력사업, 국제노동기구(ILO)에서의 협력 등 논의

마. 아세안+3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

- 기존 아세안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에 한·중·일 사회복지개발 장관을 초청함으로써 2004.4월 제1차 아세안+3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 개최
- 아세안+3 사회복지개발분야, 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정책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2030(SDG 2030) 및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 2025에 APT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

■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SOM)

-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2000.5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외교장관회의준비, 정상 회의 후속조치 점검 및 준비 등 논의
- 상·하반기 공식 SOM이 각 1회씩 개최되고, 7-8월경 외교장관회의 개최 직전 동 회의 준비를 위한 비공식 SOM 1회 개최
※ 한·중·일이 3국 정상회의 개최 계기 조정국 역할을 수임하고, 필요시 아세안의장과 함께 공동의장직 수행(2017년 일본, 2018-2019년 중국, 2020년 한국)

■ CPR+3 회의

- 2008.12월 아세안 현장 발효에 따라 설립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상주대표부와 한·중·일의 아세안 대사 간의 회의
- 아세안+3 협력사업 점검 및 미래 발전방향, 기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2. 부문별 주요 협력사안

■ 정치·안보 협력

-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 /EAVG II)을 통한 아세안+3 체제 강화 논의
- 전통 안보 뿐 아니라, 초국가 범죄 등 비전통 안보를 다루기 위한 논의가 아세안+3 초국가범죄에 관한 장관회의(AMMTC+3: ASEAN+3 Minister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및 고위관리회의(SOMTC+3: ASEAN+3 Senior Offic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에서 진행 중

■ 금융·경제 협력

- (금융 분야)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AFMGM+3: 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등을 통해 △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rganization) 창설 및 국제기구화 공식 출범 등 금융 분야 협력 강화 중

- (경제 분야) △ 아세안+3 교역·투자확대, △중소기업 역량강화, △4차 산업 혁명 대응,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사업(APTERR) 및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발전, △ 환경 및 경제성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 문제 등에 대해 논의 중

■ 사회·문화 협력

-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active aging), 감염병 및 위기 대응, 보편적 의료 보장 등 보건분야 협력, △아세안+3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C) 채택, △청소년, 여성, 노동자 보호 및 인권 증진, △언론·문화·예술 협력, △ Track 1 차원의 협력과 별도로 Track 1.5(EAF : East Asia Forum) 및 Track 2(NEAT : Network of East Asia Think-tanks)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 운영 중

3. 아세안+3 협력체 현황표

수준 분야	정상	각료급	고위급/ 대사급	실무급/ 전문가	여타 Track
외교	Summit	FMM	SOM CPR+3	CPR+3 WG	
초국가적 범죄		AMMTC+3	SOMTC+3	SOMTC+3	
행정			ACCSM+3	ACCSM+3 Joint Technical Working Group	
경제		AEM+3	SEOM+3		
재무		AFMGM+3	AFCDM+3	- WG of CMIM - Group of Experts - ETWG - APT Research Group - Taskforce on Future Priorities of ASEAN Plus Three finance cooperation - 5 TF under ABMI	
중소기업				SMEWG+3	
에너지		AMEM+3	SOME+3	SOME+3 EPGG	3 SOME+ 3 Fora
환경		AMME+3 (EMM)	ASOEN+3 (SOME)		
농림		AMAF+3	SOM AMAF+3	- DGs of Agricultural Statistics and Information in APT Countries - APTERR Council	
관광		M-ATM+3	NTOs+3	APT e-Tourism Working Group	

수준 분야	정상	각료급	고위급/ 대사급	실무급/ 전문가	여타 Track
노동		ALMM+3	SLOM+3	- ASEAN TVET Council	
보건		AHMM+3	SOMH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T Partnership Laboratories - APT Field Epidemiology Network - APT Universal Health Coverage Network - A+3 Focal Points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under the ASEAN Expert Group on Communicable Disease) 	
문화예술		AMCA+3	SOMCA+3	APTCCN	
사회복지		AMMSWD+3	SOMSWD+3		
청소년		AMMY+3	SOMY+3		
과학기술			COST+3		
농촌개발 및 빈곤경감			SOMRDPE+3		
광물			ASOMM+3		
여성			ACW+3		
정보		AMRI+3	SOMRI+3	CSI+3	
교육		APTEMM	SOMED+3	ASEAN+3 WG Meeting on Mobility of Higher Education and Ensuring Quality Assurance of Higher Education	
기타					EAF, NEAT

APT Summit	= ASEAN Plus Three Summit
APT FMM	= ASEAN Plus Three Foreign Ministers' Meeting
APT SOM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CPR Plus Three	=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ASEAN and Ambassadors of the Plus Three countries to ASEAN
APTWG	= ASEAN Plus Three Working Group
AMMTC+3	= ASEAN Plus Three Minister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SOMTC+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AEM+3	= ASEAN Economic Ministers' Plus Three Consultations
SEOM+3	= Senior Economic Officials' Meeting Plus Three Consultations
AFMGM+3	= ASEAN Plus Three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joint Meeting
AFCDM+3	= ASEAN Plus Three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Focal Group of ABMI	= Focal Group of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Working Group of CMIM	= Working Group for Review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The Group of Expert	= established to supplement the existing surveillance mechanism
ETWG	= Technical Working Group on Economic and Financial Monitoring, established to develop Early Warning System (EWS) to supplement the current surveillance mechanism
APT Research Group	= Combination of APT Institutes/Researchers conducting researches in finance
M-ATM+3	= Meeting of ASEAN Plus Three Tourism Ministers
NTOs+3	= ASEAN Plus Three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s
AMAF+3	= ASEAN Plus Three Ministerial Meeting on Agriculture and Forestry
SOM-AMAF+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Agriculture and Forestry

APTERR Council	=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Council
AMEM+3	= ASEAN Plus Three Ministers' on Energy Meeting
SOME+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SOME+3 EPGG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Policy Governing Group
ASOMM+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Minerals
SMEWG+3	= ASEAN Plus Thre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orking Group
AMME+3 (EMM)	= ASEAN Plus Three Ministerial Meeting on the Environment
ASOEN+3 (SOME)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
SOMRDPE+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AMMSWD+3	= ASEAN Plus Three Ministerial Meeting on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ASOMSWD+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AMMY+3	= ASEAN Plus Three Ministerial Meeting on Youth
ASOMY+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Youth
ACW+3	= ASEAN Plus Three Committee on Women
ACCSM+3	=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on Civil Service Matters
ALMM+3	= ASEAN Plus Three Labour Ministerial Meeting
SLOM+3	= ASEAN Plus Three Senior Labour Officials' Meeting
AMCA+3	= ASEAN Plus Three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and Arts
SOMCA+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responsible for Culture and Arts
APTCNN	= ASEAN Plus Three Cultural Cooperation Network
AMRI+3	= ASEAN Plus Three Ministers' Responsible for Information

SOMRI+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Responsible for Information
SCI+3	= ASEAN Plus Three Sub-committee on Information
APTEMM	= ASEAN Plus Three Education Ministers' Meeting
SOMED+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ducation
COST+3	= ASEAN Plus Thre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AHMM+3	= ASEAN Plus Three Health Ministers' Meeting
SOMHD+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on Health and Development
EAF	= East Asia Forum
NEAT	= Network of East Asia Think-Tanks

* 5 Task Forces under ABMI:

- (1) TF1: Promoting Issuance of Local Currency Denominated Bonds;
- (2) TF2: Facilitating Demand for Local Currency Denominated Bonds;
- (3) TF3: Improving The Regulatory Framework
- (4) TF4: Improving Related Infrastructure for the Bond Market
- (5) Technical Assistance Coordinating Team(TACT)

** 3SOME+3 Fora:

- (1) APT Natural gas and Oil Market Forum
- (2) APT Energy Security Forum which includes Oil Stockpiling, Coal and Civilian Nuclear Energy; and
- (3) APT New and Renewable Energy(NRE) and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EE&C) Forum including Clean Development Mechanism

III

아세안+3 정상회의 주요 결과

1. 최근 아세안+3 정상회의 결과

* 제12차 정상회의까지는 별도 표 참조

○ 제13차 아세안+3 정상회의(2010.10., 베트남)

- 우리 정상이 제안한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 East Asia Vision Group II)」 설립 합의
 - EAVG II의 임무는 아세안+3의 다양한 협력 성과 점검 및 2020년까지 동아시아 공동체 달성을 위한 미래 발전방향 제시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발효, CMIM 이행을 위한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설립 합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 Credit Guarantee Investment Facility) 설립 등 아세안+3 금융협력의 성과 평가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의 조속한 서명 및 이행을 위한 아세안+3 국가간 협력 합의



제13차 아세안+3 정상회의

○ 제14차 아세안+3 정상회의(2011.11., 인도네시아)

- 2011.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의 창립회의 개최 환영 및 2012년 정상회의시 보고될 최종보고서에 대한 기대
- 역내 금융안전망 공고화를 위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적극적 역할 및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위기 예방 역할 강조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의 원활한 이행 기대
- 2012년이 아세안+3 출범 15주년임을 감안, 2012년 정상회의는 「15 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로 개최 합의



제14차 아세안+3 정상회의

○ 제15차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2012.11., 캄보디아)

- 1997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아세안+3가 출범한 이후 15년간 동아시아에서 가장 제도화된 다자협력체로 발전했음을 평가
- 특히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및 규모 2배 확대 등 금융 협력 및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 발효 등 식량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 거양
- 향후 아세안+3가 금융위기, 식량·에너지 안보, 개발 격차 등 동아시아 및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
-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발전 및 역내 협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연계성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 공유
- 우리 제안으로 11년부터 활동한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 최종보고서 채택 환영
- 아세안+3 협력 15주년 기념 공동성명 발표 및 연계성에 관한 아세안+3 파트너십 선언 채택



○ 제16차 아세안+3 정상회의(2013.10., 브루나이)

- 아세안+3가 금융, 식량, 보건, 교육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양, 동아시아 공동체 달성을 위한 견인차로 자리 매김 했음을 평가
- 그간의 성과 점검 결과, 협력환경 변경 및 향후 이행 사항을 반영한 「아세안+3 작업계획 2013-2017」의 채택 환영

※ 아세안+3의 구체 협력분야와 세부사업을 10년 단위로 제시한 「아세안+3 작업계획 2007-2017」 채택 후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점검하고자 5년 단위로 재작성
- 2012년 정상회의시 제출한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 보고서 후속조치에 관한 컨셉페이퍼* 채택 환영 및 동 후속조치의 원활한 이행 기대

* EAVG II 권고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이행 가능한 계획으로 검토하기 위해 우리측 주도로 작성(Concept Paper on the Follow-ups to the EAVG II)
- 한·중·일 3국협력 조정국으로서 3국협력 현황 소개 및 동북아 지역의 신뢰구축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 요청
- 아세안+3 차원의 금융위기, 식량·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역내 연계성 증진 등 역내 및 글로벌 이슈 해결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제16차 아세안+3 정상회의

○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2014.11., 미얀마)

- 아세안+3 협력 작업계획(2013-2017)의 충실한 이행 촉구

※ 5개년 아세안+3 협력 작업계획(2013-2017)의 이행사항을 보다 더 멀히 검토하고자 2년 단년까지 총 236개 협력사항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

-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역내 도전 과제들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 2015년 정상회의시까지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 후속 조치 보고 및 사업별 행동계획 수립 기대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

○ 제18차 아세안+3 정상회의(2015.11., 말레이시아)

-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위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평가하고, 아세안+3 분야별 협력 강화 및 확대 의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아세안+3 협력이 동아시아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원동력임을 재확인
 - EAVG II 후속조치 최종보고서 채택 환영 및 각 권고사항별 행동계획의 충실햄 이행 촉구
- ※ 정상들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와 함께 EAVG II 후속조치 최종 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큰 동력이 마련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동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에 사의를 표명
-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아세안과 3국 협력체가 상호 연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 강조



제18차 아세안+3 정상회의

○ 제19차 아세안+3 정상회의(2016.9., 라오스)

- 그간 「아세안+3 협력 작업계획(2013-2017)」 및 「EAVG II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협력이 충실히 이루어진 것을 평가
 - 식량안보, 연계성, 무역·투자, 고등교육, 행정서비스, 사회복지, 농촌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필요성 언급
- ※ 아세안은 특히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이행을 위한 한·중·일의 지속적인 지지를 기대한다고 언급
- 전통 안보와 마찬가지로 테러,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전염병 등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아세안+3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



제19차 아세안+3 정상회의

○ 제20차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2017.11., 필리핀)

-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성공적 공동 대응 및 지난 20년간 금융,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평가
 - 후속 아세안+3 협력 행동계획(2018-2022) 채택을 환영
 - 최근 보호주의와 반세계화 추세의 확산 속에서 자유무역과 지역통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아세안+3 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 ※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3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I: East Asia Vision Group III)의 구성을 제안



제20차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

○ 제21차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2018.11., 싱가포르)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아세안+3가 이후 20여년간 금융, 식량안보, 무역자유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들을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
- 최근 보호무역주의 부상 등 반세계화 기조 속에서도 포용적인 상생 번영의 협력체로서 그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
-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등 연계성 프로그램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분야 지원, △인재양성, △중소 영세기업 지원,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추가 협력 방안 모색
※ 기타 제안사항으로 중국은 한·중·일+X 협력 플랫폼 도입, 말레이시아는 역내 무역결제수단으로서 공동의 무역화폐 도입, 태국은 EAVG III 논의 착수를 언급

○ 제22차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2019.11., 태국)

-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아세안+3가 역내 공동 협력의 기반이 되어온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 공유
- ※ RCEP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2020년까지 RCEP 협상을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역내 무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기를 희망
- 역내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물리적·인적·디지털 연계성 강화, 금융·경제 협력 체계 강화 등을 강조하는 ‘연계성 전략들간 연계에 관한 정상성명’ 채택



제22차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

○ 코로나19에 관한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2020.4., 화상회의)

- 코로나19 종식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아세안+3 역내국간 공조 의지 결집, 연대 및 협력 확인
 -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 방안, 개방 경제 유지 필요성 등 실질 협력 방안 논의
- 한국형 방역 경험에 대한 긍정 평가 확인, 역내 신뢰 · 공감대 확보
- 아세안측은 우리의 방역 경험 공유 적극 희망 및 방역물품 지원 요청
- 공동성명에 우리측 주요 관심사안(△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촉진, △교역 및 투자 시장 개방 유지, △후속조치 임무 부여) 등 반영

공동성명 주요 내용

- 감염병 발생상황 및 각국 조치 관련 정기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유
-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
- 아세안+3 차원의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도 신설 검토
- 항바이러스 의약품, 백신 R&D 등 역학 연구 등 과학적 협력 강화
- 공중보건 분야 인적자원 및 역량 개발을 위한 아세안 및 한·중·일 3국간 상호 지원 및 협력 독려
-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설립 등 코로나19 확산 통제 및 역내 국민 보호를 위한 자금 확보 추진
- 역내 거주 아세안+3 국민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치료 보장
- 교역 및 투자 시장 개방 유지를 위한 의지 재확인
- 역내 필수적인 상호 흐름 유지 장려
- 역내 경제에 대한 신뢰 제고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 중소 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행
- 필수 의약품, 중요 농산물, 서비스 공급 등 안정화 노력 강화
- 역내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운영에 대한 의지 재확인
- 동 성명 이행을 위해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 이행 점검 임무 부여

2. 1997-2019년간 아세안+3 정상회의 결과

차수	시기	장소	주요 내용
1	1997.12.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우리의 금융개혁 노력 설명 및 아세안과의 긴밀한 협력 방침 천명
2	1998.12.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 협의 ○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 우리는 아세안+3 체제의 발전 방향 및 역내 경협증진 방안 등 논의를 위한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 EAVG) 창설 제안
3	1999.11.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 역내 경제구조 개혁, 금융·통화·재정문제 관련 정책 협의·조정 강화 등 합의 ○ 우리는 동아시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 강조
4	2000.11.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설립 결정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분야 협력, 역내 빈부격차 해소 및 금융위기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강조
5	2001.11.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치·경제·금융·환경 등 분야 협력에 관한(EAVG) 보고서 채택 ○ WTO 뉴라운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 테러리즘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키로 합의
6	2002.11.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SG의 26개 장·단기 협력 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로 전환하기로 합의
7	2003.10.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SG의 26개 장·단기 협력 사업 이행 현황 점검 ○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지원 합의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및 역내 테러 척결을 위한 공동 노력 강화 촉구
8	2004.11.	라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중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EAS를 개최키로 합의 ○ 회원국간 정보·개발 격차 해소 주력 필요성 강조 ○ 「EAFTA」 창설 문제 연구를 위한 전문가 그룹 설치 결정 환영

차수	시기	장소	주 요 내 용
9	2005.12.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실현 과정에서 아세안이 주도력을 발휘하며 아세안+3 체제가 종추적 역할(main vehicle)을 지속 담당한다는데 인식 공유 ○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 강조
10	2007.1.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재난관리 등 아세안+3 협력분야의 확대 평가 ○ EAFTA 타당성 연구결과 평가, EAFTA 2단계 산업별/분야별 연구실시 승인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중·일의 노력을 지지
11	2007.11.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10년간 동아시아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및 아세안+3 협력 Work Plan(2007-2017) 채택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및 아시아 채권시장 논의의 진전을 환영하고 아세안+3 에너지 협력의 진전 평가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확고한 지지 입장 표명 ※ 2008년 정상회의는 당시 의장국이었던 태국의 정세불안으로 인해 무산
12	2009.10.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방안(ABMI) 등 국제경제·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간 협력 증대 합의 ○ 역내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 아세안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조속 실현을 위한 노력을 촉구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재난관리 등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역내 협력 방안 협의 ※ 「식량안보 및 바이오에너지 협력에 관한 성명」 채택

IV

아세안+3 주요 협력 현황

1. 아세안+3 협력의 발전

■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 East Asia Vision Group)

- 1998.12월 하노이 아세안+3 정상회의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연구를 위해 우리 정상(김대중 대통령)이 13개 회원국 저명인사 및 학자로 구성된 비전그룹 설립 제안
※ 한국에서는 한승주 前외무장관(의장 역임)과 이경태 KIEP 원장 선임
- 1999.10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회의 이후 4차례 회의를 거쳐 2001. 11월 브루나이 아세안+3 정상회의시 최종보고서 제출
 - “평화·번영·발전(3P: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제시
 - 6개 분야(△경제, △금융, △정치·안보, △환경·에너지, △사회·문화·교육, △제도) 협력 강화를 위한 권고 및 협력조치 제시
 - 바람직한 동아시아의 미래상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개방적이며 견고한 지역통합을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비전으로 제시,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발전심화에 기여

■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 East Asia Study Group)

- EAVG 권고사항 중 우선순위가 높고 이행 가능한 협력조치 선정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의미 연구를 위해 2000.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시 한국측 제안으로 설립 합의되어 2001.3월 정식 발족
 - 아세안+3 회원국 및 아세안 사무국으로 구성
 - 한국 및 아세안 의장국이 공동의장국 역할

※ 아세안측 공동의장은 베트남(2001.3.-7.), 브루나이(2001.8.-2002.7.), 캄보디아(2002.8.-2002.11.) 역임
- EASG 고위관리회의 6회, 실무그룹회의 6회 개최 후 2002.11월 캄보디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최종보고서 제출
 - 협력사업 내용 : 총26개(단기조치 17개, 중·장기 및 추가연구조치 9개)
- EASG 최종보고서에서 권고한 26개 협력사업은 이후 아세안+3가 20여개 넘는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발판으로 작용

구체 내용	
단기 협력 조치	경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Business Council 설립 ○ 최빈개도국에 대한 GSP 지위 및 특혜조치 부여 ○ FDI 확대 위한 투자유인 환경 조성 ○ 동아시아 투자정보 네트워크 설립 ○ 성장지대 내 자원·인프라 공동개발, 금융지원 및 민간참여 장려 ○ 인프라, IT, 인적자원 개발 등 3개 우선분야의 지원 및 협력 제공 ○ 기술이전 및 공동기술 개발을 통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I 및 전략적 제휴 ○ 인터넷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인터넷 IT 공동개발 및 통신 인프라 구축
	정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적, 마약 거래 등 새로운 안보문제에 있어서의 협력메카니즘 강화 ○ 동아시아 Think-Tanks 네트워크 구축
	사회·문화·교육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감소 프로그램 수립 ○ 기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조 ○ 포괄적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의 이행 ○ 동아시아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문화·교육기관 간의 공동 노력 ○ 예술, 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네트워크 증진 및 전문가 교류 ○ 역내 동아시아 연구 증진
	제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포럼(EAF) 설립
중·장기 협력 조치	경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설립 ○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 확대 ○ 아세안 투자지대 확대를 통한 동아시아 투자지대 설립
	금융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차입 협정 또는 동아시아 통화기금 설립 ○ 금융 안정 및 경제 개발을 위하여 역내 긴밀한 환율 공조체계 추진
	환경, 에너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정책 및 전략 기본방향 수립 및 범아세안 에너지 네트워크 프로젝트 형태의 이행계획 수립 ○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해양환경협력 증진
	사회, 문화, 교육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 및 국가-시민 partnership 증진을 위하여, 정책자문 및 공조에 있어서 NGO와 긴밀한 협력
	제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및 사업계획

(The Second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 and its Work Plan)

가. 추진 경위

- 2004.11월 제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3 체제 10주년인 2007년 정상회의 계기에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
- 2005.12월 제9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2007.1월 제10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재확인, 2007.11월 정상회의시 채택

나. 공동성명 주요 내용

- 과거 10년간 아세안+3 체제 활동 평가
- 향후 10년간(2007-2017) 지역협력에 있어 아세안+3가 추구해야 할 목적 및 임무
- 분야별(정치·안보, 경제, 에너지·지속가능 개발, 사회·문화) 협력 증진 방향
- 「아세안+3 협력기금」 설립 추진

다. 아세안+3 협력사업계획

- 제2차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 분야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07.11월 정상회의시 공동성명과 함께 채택
 - 2013.10월 정상회의시,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협력부진 분야 및

신규협력 추진분야를 반영한 수정본 「ASEAN+3 Work Plan 2013-2017」 채택(신규로 연계성 등 포함)

○ 주요 내용(27개 협력분야)

- 정치 및 안보협력(5개) : 정치 및 안보협력 심화/반테러/해양안보/기타 비전통적 안보
- 경제 및 금융협력(11개) : 무역 및 투자/금융협력/표준화/지적재산권/ 교통/관광/식량·농림어업/광물자원/중소기업/정보통신기술/개발협력
-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협력(2개) : 에너지 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 사회, 문화 및 개발협력(9개) : UN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 위한 협력/EAF·NEAT· NEAS·NEACH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권고 검토/빈곤 감소/취약계층 보호/문화 및 인적교류/교육/과학기술/보건/재난관리 및 긴급대응 등
- 제도적 지원 및 후속조치 메커니즘

■ 아세안 +3 협력 작업계획(2018-2022)

○ 기존 아세안+3 작업계획(2013-2017) 기간 종료에 따라 2017년 아세안 +3 외교장관회의에서 후속 작업계획(2018-2022) 채택

○ 주요 내용(38개 협력분야)

- 정치 및 안보협력(5개) : 정치 및 안보협력 심화/초국가 범죄 및 기타 비전통안보 문제 대응/테러 및 극단주의 대응/ 해양 협력 강화/ 공통 가치로서의(문화적, 종교적) 절제 추구
- 경제 및 금융협력(8개) : 무역 및 투자 촉진/역내 금융 안정성 유지/ 지속 가능한 관광 및 인적 연계성 촉진/ 식량, 농업 및 임업 협력 강화/

에너지안보 협력 강화/ 광물자원 협력 강화/ 중소기업(MSMEs)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과학, 기술 및 혁신(STI) 분야 협력 강화

- 사회, 문화 및 개발 협력(14개) : 환경 보호 및 보존,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기후변화의 영향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빈곤 퇴치 협력 강화/ 사회 복지 및 발전 강화/ 활동적인 노령화 촉진/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 평등 촉진/ 공무원 역량 강화/ 노동 및 이주 노동자 관련 협력 증진/ 문화 교류 및 협력 강화/ 청소년 교류 및 스포츠 협력 강화/ 정보 및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 시스템 강화 및 교육 접근성 향상/ 공중 보건 협력 강화/ 재난 관리 및 비상 대응 협력 촉진
- 연계성 협력(2개) : 동아시아 지역 연계성 증진/ MPAC 2025(아세안 연계성 2025 마스터 플랜)의 성공적 이행 지원
-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지원(1개) : IAI Work Plan III의 이행을 통한 역내 개발 격차 완화 및 통합 지원
- 트랙 1.5 및 트랙 2 협력(2개)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반영/ 동아시아 포럼(EAF) 및 동아시아 싱크 탱크 네트워크(NEAT) 강화
- 제도적 지원 및 후속 메커니즘(6개) : APT 협력 기금(APTCF) 강화/ 동 작업계획 시행을 위한 아세안사무국의 일정 수립/ 아세안 프로젝트 관리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는 사업 개발 및 이행/ 기존 메커니즘을 통한 작업계획 검토/ 작업계획 이행 관련 경과 보고서 준비/ 한,중,일-아세안 센터간 상호 협력 촉진

■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II)

- 2010.10월 하노이 아세안+3 정상회의 시 2012년이 아세안+3 출범 15주년 임을 감안하여, △아세안+3 협력 현황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성 및 △

EAS 확대 등 동아시아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른 아세안+3 협력체제의 역할 및 미래 발전 방향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

- 2011년 정상회의시, 우리 정상(이명박 대통령)이 EAVG II 설립 제안
- 아세안+3 회원국의 전·현직 관료, 쟁크탱크 소장 등 동아시아 지역 협력 전문가 및 아세안 사무국 대표 각 1명씩으로 구성 (총 14명)
 - 윤영관 前외교장관이 우리측 EAVG II 대표 및 공동의장으로 활동
- 2011.10월 서울 창립회의를 시작으로, 2012.2월 나짱 2차회의, 5월 동경 3차회의, 9월 말리 4차회의를 통해 아세안+3 협력 성과 및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미래방향을 연구, 그 결과보고서를 2012년 캄보디아 개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제출 및 채택
 -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EAAC: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설립”을 새로운 비전의 주축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 등의 권고사항 59개를 제시
 - 제시된 전체 권고사항 가운데 25개의 권고사항만을 이행하도록 2015.8월 아세안+3 SOM회의에서 합의했으며, 그 가운데 주도국이 정해진 21개에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여타 주도국가가 없는 4개의 권고사항은 추후 재 고려키로 합의)
- ※ EAAC 4가지 구성 요소 : ① 단일시장, 생산기지, ②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에너지·식량 안보, ③ 균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④ 세계 경제에 대한 건설적 기여
- EAVG II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서(주요 권고사항별 행동 계획 포함)를 2015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제출
- EAVG II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 진전보고서(행동 계획 승인 및 이행 현황 평가)를 2016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제출

- 주도국가가 없는 6개 권고사항 중 작업계획(2018-2022)에 유사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4개 권고사항은 작업계획에 통합
 - ※ 권고사항 10번 및 11번에 대한 우리나라 및 베트남의 주도 철회 결정으로 2개 증가
 - 유사한 작업이 없는 2개 권고사항은 추후 재고려

2. 주요 협력 성과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CMIM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CMI 양자간 통화 스와프 협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2006.5월 아세안 +3 재무장관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형태의 역내 금융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CMI 다자화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
 -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 1999.11월 제3차 아세안+3 정상회의시 1997년의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아세안+3 체제를 통한 역내 금융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키로 약속
 - 2000.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계약 상대국의 금융위기시 약정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합의
- 2007.5월 재무장관회의에서 CMI 펀드 형태를 계약협약으로 하고, 펀드 운용은 각 회원국이 자국 참여분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하며, 감시 기능을 강화키로 합의(1단계 종료)
- 2009.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분담금, 투표권, 독립적인 감시 기구 설립 등에 대해 최종 합의
 - ※ 한국은 총 1,200억불 중 192억불(16%) 부담(중, 일 각 32%)
 - 2009.6월부터 한국 주도로 협정문을 마련, 2009.12월 서명을 완료하고, CMIM은 2010.3.24일부터 발효

- 2010.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감시기구의 운영, 비용 부담 원칙* 등에 합의
* 한·중·일:아세안 = 80:20(한·중·일은 1:2:2, 한국은 16%부담)
- 2012.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CMIM의 규모를 1,200억불에서 2,400억불로 확대키로 합의
- 2014.7월 CMIM 개편 발효
 - ① (규모확대) CMIM 규모를 1,200억불→2,400억불로 2배 확대
 - ② (위기예방기능 도입) 위기해결기능*만 갖고 있던 CMIM에 위기발생 이전이라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위기예방기능**을 도입
 - * 위기 발생 이후에 긴급자금을 지원
 - **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유동성 지원
 - ③ (IMF 비연계 비중 확대) IMF와 연계 없이도 지원 가능한 비율을 당초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역내 위기에의 독자적 대응능력을 강화
 - * 달러 유동성 요청국이 인출가능 금액의 30%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IMF 프로그램을 같이 도입해야 함
- 2020.6월 CMIM 협정문 개정안 발효
※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협정문 개정 방향 논의 → 2019.5월 재무장관·총재회의에서 개정안 승인 → 2020.6.16일 27개 기관 서명절차 완료 → 2020.6.23일 개정 협정문 효력 발생
 - ① (CMIM 만기 완화) IMF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자금지원*에 대해 만기연장 횟수·기간 제한**을 폐지***
 - * 회원국별로 인출한도의 30% 이상을 지원할 경우 IMF 지원 프로그램 연계 필요
 - ** 1년 만기, 2회 연장 가능(최대 3년 만기)
 - *** CMIM 자금지원이 연계된 IMF 지원프로그램보다 만기가 짧은 경우 등에 대비

② (신용공여조건(Conditionality) 부과) 위기해결을 위한 자금지원시* CMIM이 자금요청국에 경제·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CMIM 자금지원은 유동성 위기예방과 위기해결 목적으로 구분하여 지원

③ (CMIM-IMF 협업 강화) 자금지원 초기단계부터 자금요청국의 경제·금융상황, 자금수요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시행하고, IMF 등과 자금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도입*

* (기존) CMIM 계약 및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비공개→(개선) IMF·ADB 등과의 협업에 필요한 정보공유 허용

④ (자금지원절차 개선)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자금 지원 스케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분할 지급* 허용

* (기존) 자금지원 결정 후 일시에 전액 지급만 가능 → (개선) 프로그램 진행 경과에 따라 분할 지급 허용

○ 2020.9월 CMIM 협정문 개정안 승인

※ 2020.9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CMIM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협정문 개정안 승인 → 서명 및 발효절차를 2021년말까지 완료 추진

① (IMF 비연계자금 비중 확대) 위기시 국제통화기금의 자금과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비중을 30% → 40%로 확대

② (역내통화 활용) 역내통화활용 근거를 협정문에 반영하여 제도화

③ (신용공여조건 부과체계 완비) CMIM 신용공여를 위한 부과 조건을 제도화하는 ‘IMF 비연계자금 기술지침’을 승인·제정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 2011.4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체제하에서 역내 각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감시·분석을 통해 신속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3.5월 싱가포르 상법상 법인으로 설립
 - AMRO를 정식 국제기구화시키기 위한 조약이 2014.10월 IMF/WB 연차총회 계기 서명되었으며, 2016.2.9일 「아세안 및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국제기구로서 설립(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태국, 라오스, 중국, 일본, 한국, 홍콩 등 11개국 비준서 기탁)
 - ※ 아세안+3 금융협력과 관련 최초의 정식 국제기구
- AMRO는 집행위원회, 자문단, 소장 이하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국은 CMIM 분담금 비중으로 운영비 부담(:아세안=80:20, 우리나라는 16%)
 - 집행위원회는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와 홍콩통화관리국 부총재 등 총 27명으로 구성
 - 자문단은 한·중·일과 아세안에서 각각 3명씩 추천, 총 6명으로 구성
 - ※ 우리나라 할당 자문단은 허경욱 前 OECD 대사(2014.11.-2018.11.),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2018.11.-2020)
 - 소장 : 前 Chang Junhong(중국, 2016.5.-2019.5.)
現 Toshinori Doi(일본, 2019.5.-2022.5.)
- AMRO-ADB(2017.5.), AMRO-IMF(2017.11.), AMRO-ESM(2017.11.), AMRO-FLAR(2018.10.), AMRO-TCS(2019.4.) 간 양해각서 체결
 - ※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 2017.10월 UN총회 영구 읍서버 자격 획득

■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ABMI :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 역내 통화표시 채권시장을 발전시켜 역내 여유자금의 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03년 우리나라가 제안한 의제
 - 2012.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시, ABMI 출범 10주년을 맞아 「ABMI New Roadmap+」 채택
 - 그간의 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아시아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ABMI 기본방향 설정 및 실질적 성과 거양이 예상되는 12개 과제를 선정, 이 중 9개 우선순위 과제를 중점 추진
 - 2013.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시, 「ABMI New Roadmap+」 과제 중 우리나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역내 예탁결제기구 설립을 위한 포럼 신설, △새로운 역내 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 합의
 - 2016.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시, 「ABMI New Roadmap+」 신규 중기 로드맵 승인
 - 3개 신규 사업 설정(녹색채권, 커버드본드 활성화, 역내 레포거래 적격 담보 검토)
 - 2019.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시, 「ABMI New Roadmap 2019~2022」 신규 중기 로드맵 승인
 - 인프라 금융지원 강화, 녹색채권 및 AMBIF 채권 활성화, 채권시장 관련 규제 표준화,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 역내 이니셔티브간의 협력 증진 등에 역량을 기울이기로 합의
- ※ ASEAN+3 Multi-Currency Bond Issuance Framework

■ 아세안+3 신규 이니셔티브 구체화를 위한 연구작업반

- 2019.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5개의 신규 중장기과제* 승인
 - * ① 역내통화 활용 증진, ② 인프라투자 지원 강화, ③ 구조적 이슈 대응을 위한 지원 확충, ④ 기후변화 대응 협력, ⑤ 기술진보(핀테크) 정책공조 등
- 2019.12월 재무차관회의에서 5개의 연구 작업반이 구성되어 2020.9월 재무장관회의에서 작업반별로 예비 연구보고서 제출

■ 아세안+3 비상쌀 비축사업

(APTERR: 아세안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 아세안+3 회원국의 식량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내 비상사태 발생시 쌀의 안정적 공급 및 쌀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쌀 비축 시스템 구축
 - 총 비축량은 78만톤으로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정한 약정물량을 비축
※ 한·중·일·아세안 비중(%)= 20:38:32:10(우리는 15만톤 분담)
 - 식량위기 발생시 △상업적 판매, △장기차관, △무상공여 등의 방법으로 지원
- 2011.10월 제11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시 APTERR 협정 서명, 2012.7월 발효
 - 2013.8월 협정 국내 발효, 사무국 태국 방콕 소재
- 2013년 7월 필리핀 태풍(하이옌) 피해시 6,980톤 지원
- 2013.10-2014.2월 라오스 수해시 400톤 지원
- 2017년 미얀마 난민캠프 및 캄보디아, 베트남의 자연재해 피해 대응을 위해 총 1만 750톤의 구호용 쌀 지원

- 2018년 베트남에 긴급구호용 1만톤, 미얀마에 홍수구호용 1,300톤, 라오스에 태풍구호용 1,000톤 각각 지원
- 2019년 미얀마, 라오스에 재해대비용으로 500톤 각각 지원
- 2020년 필리핀에 긴급구호용 1,950톤을 지원하고, 재해대비용으로 미얀마 600톤, 필리핀 400톤 각각 지원

3. 우리측 주도 협력사업

- 우리는 교육, 농업,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 중

가. 교육분야

- 아세안+3 과학영재 전문가 회의
 - ※ 연 1회 APT 회원국 과학영재 전문가 초청, 우수과학영재 교육 사례 소개
- 아세안+3 과학영재 지도자 연수/ 학생 캠프 2차례 개최
 - ※ 캠프는 회원국 중등부 과학영재 대상

나. 농업분야

-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의 농업통계 수집·분석 및 배포 지원 및 역량 강화
 - ※ 농업통계자료 수집·분석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아세안 회원국 실무자들의 능력 배양을 통해 아세안 지역 식량안보 향상에 기여

- 식물검역, 농산물안전관리, 종자산업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
 - ※ (식물검역)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를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
 - ※ (농산물안전) 유해물질(잔류농약, 중금속 등) 분석 이론 및 실습, 검사 기관 방문, 국제 학술대회 참석 등
 - ※ (종자) 제도 및 정책, 품종연구 개발현황 등 정보 공유
- 농업기술 이전체계 훈련 프로그램

다. 노동분야

-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HRD) 포럼 개최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분야 경험 및 지식 공유
 - ※ 2013년 아래 연례 개최 / 2015년부터는 세계은행과 공동 개최 중

4. 아세안+3 협력기금(APTCF)

- 2007.7월 제9차 아세안+3 국장회의시 아세안측은 아세안+3 체제의 결속 강화를 위해 현재 아세안+1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아세안+3 체제 내로 편입시키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아세안+3 협력기금 설치 제안
 - 이후 회원국들간 협의를 통해 동 기금설립을 2007.11월 아세안+3 정상 회의에서 채택한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에 명시
- 2008.5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3 국장회의에서 동 협력 기금의 구체내용에 합의
- 2008.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시 동 기금 설립 선언 및 정관(TOR: Terms of Reference) 승인

- 2009.5월 아세안+3 협력기금 300만불 조성
- 2013.6월 동 기금의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외교장관회의시 2차 기금 300만불 조성에 합의
- 2017.6월 2차 기금 소진에 따라, 아세안+3 대사회의시 3차 기금(300만불) 조성에 합의

아세안+3 협력기금 TOR 주요내용

- 기금 규모 : 총 300만불
 - 기금 조성후 원금을 사업집행에 직접 사용
 - ※ 당초 2,000만불을 조성하여 동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우선 동 기금을 조기에 발족시켜 아세안+3 체제 협력강화의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는 아세안 회원국간 인식 공유에 따라 기금 규모를 대폭 하향 조정
- 기금 분담비율 : 3:3:3:1(한:중:일:아세안)
 - 우리나라 · 중국 · 일본이 90만불 기여. 아세안은 30만불 기여(1-3차 동일).
- 기금 관리
 -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되어 관리되며, 협력사업 이행 등 주요 사항은 아세안 CPR+3 회의에서 결정
 - ※ 2010.6월 아세안+3 국장회의의 임무가 아세안 CPR+3로 이양

제 4 장

EAS 협력

I. 설립 배경

II. EAS 체제 운영 현황

III. 역대 EAS 정상회의 주요 결과

IV. EAS 분야별 협력 현황

I

설립 배경

■ 발전경위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는 제5-6차 아세안+3 정상회의(2001-2002)에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과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이 권고한 사항으로 아세안+3 체제를 확대한 별도 대화 포럼으로 2005년 출범
 - ※ 당초 취지는 아세안+3 협력이 진전된 이후 아세안+3를 EAS로 완전히 대체한다는 것이었으나, 관련국간 합의 미비로 인해 아세안+3를 존치한 채 별도로 EAS를 출범

EAS(East Asia Summit) 설립 제안

- 제안배경
 - 동북아와 동남아의 지리적 인접성 및 상호의존성을 감안,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실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3 정상회의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로의 점진적 발전 권고
- 동아시아비전그룹 보고서
 - 아세안+3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궁극적 목표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존 아세안+3 정상회의 체제를 동아시아 정상회의 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
- 동아시아연구그룹 보고서
 - 아세안+3 정상회의 체제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 체제로의 전환문제는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중장기 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

- 1997년 출범한 아세안+3 체제와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활동 중
 - 아세안+3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기능적 부분에서의 협력체로서 역할 수행
 - EAS는 역내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대화의 장을 제공

■ 회원국 현황(총 18개국)

- 아세안 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상 2005년 출범 당시 원 회원국), 미국, 러시아(이상 2011년 가입)

II

EAS 체제 운영 현황

■ EAS 정상회의

- 매년 아세안+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개최

※ 아세안 의장국이 회의를 주재하며, 아세안이 주도적 역할 담당

- EAS 협력 점검 및 미래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 EAS 외교장관회의

- 2005~2007년 간 업무 오찬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2008.7월 싱가포르 회의부터 별도 회의로 개최

■ 여타 EAS 각료회의

가. 에너지 장관회의

- 제2차 EAS 정상회의(2007.1.)에서 EAS 국가간 에너지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1차 에너지장관회의(2007.8., 싱가포르) 개최 이후 매년 개최되며, 2019.9월 태국에서 제13차 EAS 에너지장관 회의개최

나. 환경장관회의

- 제3차 EAS 정상회의(2007.11.)에서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환경장관회의 개최 필요성 합의후 1차 환경장관회의(2008.10., 베트남) 개최 이후 격년 개최(2014년 이후 미개최)

다. 재무장관회의

- 호주는 EAS 재무장관회의의 정례화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으며, 비공식 장관회의가 비정례적으로 개최 중

라. 경제장관회의

- 제3차 EAS 정상회의에서는 EAS 경제관련 장관급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2019.9월 태국에서 제7차 EAS 경제장관회의 개최)

마. 교육장관회의

- 제5차 EAS 정상회의에서 EAS 교육장관회의 신설이 제안됨에 따라, 2012년 제1차 EAS 교육장관회의(2012.7.,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격년 개최(2018.11월 미얀마에서 제4차 EAS 교육장관회의가 개최되고, 2020년 필리핀이 제5차 EAS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잠정 연기)

■ EAS 고위관리회의(SOM)

- 아세안+3 SOM과 연계하여 거의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d hoc’이라는 명칭이 붙어있었던 EAS 고위관리회의는 2012년부터 공식화되어 개최

※ 5월 아세안 SOM, 7/8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AMM), 9/10월 아세안 Joint Consultative Meeting 계기 총 3차례 개최

- 동 고위관리회의에서 EAS 활동 현황 점검 및 EAS 강화방안 논의, 지역 및 국제 이슈에 관한 의견교환 진행

■ EAS 10주년 계기 EAS 강화방안 논의

- 2015년 말 EAS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EAS의 미래 발전방향 관련 「EAS 10주년 기념 선언」 채택
-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안보 의제들의 대두, EAS 협력 사업 증가, 아세안 현장에 따른 사무국 업무의 전반적인 재조정·강화 추세에 발맞추어 △정상들이 주도하는 최고 수준의 전략 대화체로서의 EAS 기능 강화, △협력분야에 대한 정기적 점검, △EAS 프로세스의 효율화 및 여타 아세안 주도 프로세스와의 시너지 창출 도모, △아세안 사무국 내 EAS 전담부서 설립, △EAS 회원국의 주아세안대사 회의 기능 강화 등 내용 포함

※ 마닐라 행동계획상 협력 분야 : △환경/에너지, △교육, △금융, △보건/전염병, △재난 관리, △아세안 연계성, △경제협력/무역, △식량안보, △해양 협력

III

역대 EAS 정상회의 주요 결과

○ 제1차 EAS 정상회의(2005.12., 말레이시아)

- 동아시아 평화·안정·번영 촉진을 위해 폭넓은 전략적, 정치·경제적 협약을 토론하는 대화포럼으로 설립 합의
- 금융·무역·투자·기술이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금융안정·에너지 안보·경제 통합 및 성장은 물론 빈곤퇴치·개발격차 완화에 역점
- 환경보호·전염병 예방·자연재해 경감 등을 위한 협력증진과 각국 국민 간 교류 활성화, 문화이해 증진을 통해 상호 신뢰제고 및 결속력 강화 도모 합의

○ 제2차 EAS 정상회의(2007.1., 필리핀)

- 당초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는 방향으로 참가국간에 의견이 수렴되었으나
 - 2005.12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시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의 제안으로 2006.12에 제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함으로써 매년 개최로 선회
- ①에너지, ②금융, ③교육, ④조류인플루엔자, ⑤재난 대응의 5대 우선 협력분야 확인 및 구체 협력사업 실시 합의

○ 제3차 EAS 정상회의(2007.11., 싱가포르)

-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집중적 논의
 -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싱가포르 선언」 채택
- 5대 우선협력분야에서의 진전된 협력 평가



제3차 EAS 정상회의

○ 제4차 EAS 정상회의(2009.10., 태국)

-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 차원의 성공적 역할 평가
- EAS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인 CEPEA에 대한 기대 표명 및 DDA 협상의 조기 타결 촉구
-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촉구를 통해 EAS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 의지 강조
- 자연재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위한 「EAS 재난관리 성명」 채택



제4차 EAS 정상회의

○ 제5차 EAS 정상회의(2010.10., 베트남)

- 출범 이후 5년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EAS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EAS 5주년 기념 하노이 선언」 채택
- 미국과 러시아의 EAS 가입 결정
- 2011년 EAS 교육장관회의 개최 제안
- 2010년 5월 개최된 비공식 재무장관회의 평가
- 지역경제통합을 위해 중국이 제안한 「아세안+3 국가간 무역원활화 로드맵」과 일본이 제안한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으로 가는 초기단계 : 점진적 접근」 평가



제5차 EAS 정상회의

○ 제6차 EAS 정상회의(2011.11., 인도네시아)

- 미국, 러시아의 EAS 참여를 환영하고, 향후 EAS 발전의 기본원칙이 담긴 「호혜관계 원칙에 관한 EAS 선언」 채택
- 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위한 EAS 차원의 기여 의지 강조를 위해 연계성을 6번째 우선협력 분야로 추가하고, 「아세안 연계성에 관한 EAS선언」을 채택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 필요성 강조 및 한국의 재난구호훈련 개최 결정 환영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
-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및 해적퇴치, 항행의 자유 등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한 각국간 공조 필요성 강조



제6차 EAS 정상회의

○ 제7차 EAS 정상회의(2012.11., 캄보디아)

- 동아시아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고, 2011년 미·러 가입 이후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EAS는 정상들 간의 전략적 포럼으로서 세계 경제회복, 무역자유화, 재난관리, 기후변화를 집중 논의
- 역내 보건 협력 관련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역차원의 대응에 관한 EAS 선언」 채택
- 개발 협력 관련 「EAS 개발 이니셔티브에 관한 프놈펜 선언」을 채택
-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역동적인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 강조
-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공식 협상 개시 선언 환영



제7차 EAS 정상회의

○ 제8차 EAS 정상회의(2013.10., 브루나이)

- 식량안보 및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재난관리, 전염병 등 6개 우선 협력 분야 및 북핵문제, 남중국해 문제, 시리아 정세 등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
- 역내 식량안보 협력 관련 「식량안보에 관한 제8차 EAS 선언」 채택 및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및 해양 환경보존을 통한 식량안보 증진에 관한 Track 2 연구그룹」 설립 합의
- 자연 재해 발생 확률이 높고 피해가 큰 아·태지역에서의 재난 예방, 관리 및 위기대응에 관한 회원국들 간의 협력의 필요성 강조
- 보건관련, 「아·태지역 말라리아 정상연대(APLMA)」 설립 합의
- 주요 정세 관련,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항행의 자유 강조, 시리아내 화학무기 사용 규탄
- 한반도 비핵화 지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환영



제8차 EAS 정상회의

○ 제9차 EAS 정상회의(2014.11., 미얀마)

- 에볼라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 강조
-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재난관리, 말라리아, 해양안보 등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EAS 차원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 강조
- EAS가 역내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며, 전략 포럼으로서 전략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필요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필요성 강조,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 상 의무준수 중요성 재확인, 6자회담 재개에 필요한 조건 형성 촉구
-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및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의 조속한 체결 촉구
- 이라크 및 시리아 내 극단주의 배격과 외국인 테러전투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약속



제9차 EAS 정상회의

○ 제10차 EAS 정상회의(2015.11., 말레이시아)

- 북핵, 남중국해 등 전통적 안보이슈와 폭력적 극단주의를 포함한 비전통적 안보도전, 그리고 EAS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남중국해에서의 비군사화 문제 공론화
- 최근 발생한 일련의 테러 사건들은 비전통 안보 위협의 심각성을 부각
- 우리 주도로 「유행 및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과 관련한 역내 보건안보 증진 성명」 채택
- 창설 10주년을 맞는 EAS의 미래 발전방향 및 강화방안을 담은 「EAS 10주년 기념 선언」 채택



제10차 EAS 정상회의

○ 제11차 EAS 정상회의(2016.9., 라오스)

- △에너지, 교육, 금융, 보건, 환경, 연계성 등 6대 우선 협력 분야 및 △북핵, 남중국해, 테러, 난민·이주민, 동아·태지역에서의 지역경제 통합 등 기타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
- 북한의 명시적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 촉구,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인도적 우려에 대한 대응 중요성 등을 강조
- 남중국해에서의 비군사화 및 남중국해 행동선언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 강조
- 최근 발생한 일련의 테러 사건들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한국 및 인도네시아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관련 지역 세미나’ 공동 주최를 환영
- 자카르타 소재 EAS 회원국 대사회의 출범 및 아세안 사무국내 EAS 전담 부서 설립 환영
- 「비확산 성명」 채택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 핵 및 미사일 위협이라는 도전에 대해 EAS 정상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 의지 표명



제11차 EAS 정상회의

○ 제12차 EAS 정상회의(2017.11., 필리핀)

- 북핵 및 북한 문제, 남중국해 문제,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 추세, 미얀마 라카인 사태 등 지역 및 국제정세와 EAS 미래 협력 방향 등에 대해 논의
- 화학무기, 대테러리즘, 빙곤완화, 돈세탁 방지 등 4개의 분야에 별도의 성명을 채택
- 대다수 정상들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핵 불용 및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UN 안보리 결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
-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다수 정상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동의
- 일부 정상들은 미얀마 라카인주에서의 폭력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동 지역 내 폭력 종식을 위한 미얀마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사태 해결의 지원을 약속



제12차 EAS 정상회의

○ 제13차 EAS 정상회의(2018.11., 싱가포르)

-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등 지역 협력 구상, 대테러 등 비전통 안보 이슈 등 지역·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EAS 협력 점검 및 미래방향 등 논의
- 남북정상회담(2018.4.5·9.) 및 북미정상회담(2018.6., 싱가포르) 개최 환영,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 체결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 체결된 공동성명 환영
- 남북·북미 정상간 합의사항 및 관련 UN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
- 남중국해 관련,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효과적인 행동규칙(Code of Conduct, CoC) 마련을 위한 협상 진전에 주목하며 동 CoC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합치해야 함을 강조
- (EAS 협력 점검 및 미래 방향) 마닐라 행동계획(Manila Plan of Action) 챕터 및 동 행동계획 내 EAS 협력 분야로서 ‘해양 협력(Maritime Cooperation) 포함을 환영
- △아세안 스마트시티 성명, △핵과 방사능 물질의 안보 및 안전에 관한 성명,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성명, △외국인테러전투원 및 귀환자 위협 대응 관련 성명, △ICT 안보 및 디지털 경제 협력 심화 관련 성명 등 5개의 EAS 별도 성명 챕터
- 우리나라 ‘아세안 스마트시티 성명’ 및 ‘핵과 방사능 물질의 안보 및 안전에 관한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제13차 EAS 정상회의

○ 제14차 EAS 정상회의(2019.11, 태국)

-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문제, 지역 협력 구상, 라카인 문제, 자유무역 등 지역·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EAS 협력 점검 및 미래방향 등 논의
-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일부 회원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및 안보리 제재 이행의 중요성 강조
- 대다수 국가가 남중국해 문제를 역내 주요 현안으로 비중 있게 다루었으며, 특히 중국과 아세안간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 CoC) 협상과 관련하여 CoC의 국제법 합치 필요성 등을 강조
- 2019.6월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관련, 다수 국가들이 환영 입장을 표명했으며, 4개의 협력분야(▲해양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 ▲경제협력)에서의 자국의 역내 기여 의지를 강조
- 라카인 문제 관련,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미얀마 정부 및 아세안 차원의 상황 개선 노력을 평가하면서, 피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 하며, 존엄한 귀환을 위한 미얀마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의지 표명
- 다수 국가가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등 세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방되고 호혜적인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쉽 성명, △초국가 범죄 협력 성명, △불법 약물 확산 근절 성명 등 3개의 EAS 별도 성명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 ‘초국가 범죄 협력 성명’에 공동체안국으로 참여



제14차 EAS 정상회의

IV

EAS 분야별 협력 현황

가. 환경,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개발 분야

- EAS 환경장관회의 개최
 - 제1차(2008.10., 베트남), 제2차(2010.10., 브루나이), 제3차(2012.9., 태국), 제4차(2014.10., 라오스)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고위급 세미나」 개최(2010.3., 인도네시아 / 2012.3., 캄보디아 / 2013.3., 베트남)
- 「EAS 기후변화 적응 역량구축 세미나」 개최
 - 제1차(2008.10., 중국), 제2차(2010.3., 중국)
- 「동아시아 저탄소 파트너십 대화」 개최(2012.4., 일본 / 2013.5., 일본 / 2014.10., 일본)
-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세미나」 개최(2012.3., 베트남 / 2012.4., 인도네시아 / 2014.2., 인도네시아)
- 제9차 EAS 정상회의시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퇴치에 관한 성명서 채택(2014.11., 미얀마)
- 제7차 세계 물포럼 개최(2015.4., 대구·경주)
 -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논의에서 물 문제의 중요성 강조
-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대응을 위한 EAS 컨퍼런스 개최(2017.9., 인도네시아)

- 미세플라스틱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국제포럼 개최(2018.7., 중국)

나. 에너지 분야

- EAS 에너지장관회의 개최

- 제1차(2007.8., 싱가포르), 제2차(2008.8., 태국), 제3차(2009.7., 미얀마), 제4차(2010.7., 베트남), 제5차(2011.9., 브루나이), 제6차(2012.9., 캄보디아), 제7차(2013.9., 인도네시아), 제8차(2014.9., 라오스), 제9차(2015.10., 말레이시아), 제10차(2016.9., 미얀마), 제11차(2017.9., 필리핀), 제12차(2018.10., 싱가포르), 제13차(2019.9., 태국)
- 에너지 효율성·보존, 바이오연료, 에너지시장 통합 관련 논의

- 「EAS 에너지 협력태스크포스(ECTF)」 구성(2007.3.) 및 20여 차례 회의 개최
- 「제1차 EAS 신에너지 포럼」 개최(2013.4., 중국)
- 「아세안 에너지 전망에 관한 워크숍」 개최(2013.5., 태국)
- 「제33차 아세안 에너지장관회의(AMEM)」 개최(2015.10., 말레이시아)
- 「제2차 EAS 신에너지 포럼」 및 「에너지 아세안 센터(ACE)」 개최(2015.11., 중국)
- 「제21차 에너지 협력태스크포스(ECTF)」 및 「제34차 에너지 SOM 회의」(2013.7., 미얀마)
- 「제3차 EAS 클린 에너지 포럼」 개최(2017.7., 중국)

- 「제23차 EAS 에너지 협력테스크포스 회의」 개최(2018.7., 싱가포르)
- EAS 에너지 협력테스크포스 재생·대체에너지발전(RAPG) 워크스트림 공동의장국 수임(브루나이와 공동)
- 「제4차 EAS 클린 에너지 포럼」 개최(2019.6., 중국)
- 「제24차 EAS 에너지 협력테스크포스 회의」 개최(2019.6., 태국)

다. 교육 분야

- EAS 교육장관회의 개최
 - 제1차(2012.7., 인도네시아), 제2차(2014.9., 태국), 제3차(2016.5., 말레이시아), 제4차(2018.10., 싱가포르)
- 호주 주도 EAS 교육협력 연구사업 「역내 경쟁력 강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EAS 교육협력」 실시
- 인도 주도 「Nalanda 대학」 재건을 위한 MOU 추진
- 일본 주도 청소년 교류사업
 -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사업(JENESYS)」: 2007-2012 5년간 일본 및 동아시아 청소년 약 6,000여명 교류 목표(195백만불 지원)
 -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사업(JENESYS) 2.0」(2013.1월 발족) : 일본과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청소년 3만명 교류 목표
 - 「KAKSEHASHI 사업」: 일본과 북미지역 청소년 4600명 교류 목표
- 뉴질랜드 주도 「EAS 언론기관 종사자를 위한 Media Program」 개최
 - 제1차(2008.11., 인도네시아), 제2차(2010.3., 인도네시아)

- 호주 주도「고위교육공무원 워크샵」개최
 - 제1차(2010.5., 인도네시아), 제2차(2010.9., 태국)
- 한국 주도「대학생 특별초청 연수사업」실시(2010.5.)
- 중국 주도 향후 5년간 2000명 대상 정부 장학금 및 200명 MPA(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장학금 지원
- 「EAS 교육협력 행동계획(2012-2015)」채택
- 2015 세계교육포럼(2015.5., 한국), 미래 세계교육을 이끌어갈 교육발전 목표와 실천방안 논의
- 「교육 관련 특별 EAS SOM」(2015.12., 태국)

라. 금융 분야

- EAS 비공식 고위급 재무 관료회의
 - 제1차(2008.6., 베트남), 제2차(2012.11., 일본), 제3차(2013.10., 미국)
- 「EAS 세계 경제·금융위기에 대한 공동언론성명」발표(2009.7.)
- EAS 비공식 재무장관회의 개최(2010.5., 우즈베키스탄/ 2012.10., 일본)
- 호주 주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대상 「금융 감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2차례 워크샵 등 개최)
- 「EAS 무역·금융 워크샵」개최
 - 제1차(2009.10., 태국), 제2차(2010.5., 호주)

마. 보건 분야

- 「제4차 아세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통제 및 근절에 관한 워크샵」 개최(2008.2., 인도네시아)
- 아·태지역 말라리아 정상연대(APLMA) 설립(2013) 및 태스크 포스 회의 개최(2014)
- 제10차 EAS 정상회의시 말라리아 정상연대(APLMA) 로드맵 승인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 제1차(2014.9., 미국), 제2차(2015.9., 한국)
- 제9차 EAS 정상회의시 「에볼라 발병/확산 관련 지역대응에 관한 EAS 공동성명」 채택(2014.11., 미얀마)
- 제10차 EAS 정상회의시 「유행 및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과 관련한 역내 보건안보 증진 성명」 채택(2015.11.)
- 전염병의 통제와 예방에 관한 EAS 공중보건 고위관료·전문가 회의 개최(2017.11., 모스크바)

바. 재난 관리 분야

- 제4차 EAS 정상회의시 「EAS 재난관리 성명」 채택
- 호주, 「역내재난대응조정」 제안 및 동 제안 논의 위한 EAS 고위급관료 회의 개최(2010.3., 싱가포르)
-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을 위한 아세안 조정센터(AHA Center)」 설립 지지

- 인도네시아·호주, 「EAS 긴급재난대응워크숍」 개최(2013.9., 호주)
- 제9차 EAS 정상회의에서 신속재난대응 성명서 채택(2014.11., 미얀마)
- 호주·인도네시아, EAS 신속 재난대응 워크숍 개최(2015.6., 인도네시아)
- EAS 신속재난대응도구(toolkit) 출범(2015.6., 인도네시아)
- 호주·태국, 「탐색구조(SAR) 세미나」 개최(2015.9., 호주)
- 호주·인도네시아, EAS 재난관리 협력 ACDM 회의(2015.12., 캄보디아)에서 「EAS 국가별 재난 담당기관간 기능협력 선언」 채택
- 한국, 아세안 재난관리긴급대응협정(AADMER) 이행 지원을 위해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60만불 규모의 「아세안 재난관리 플랫폼」 (ADMP: Disaster Management Platform) 사업
- EAS 재난관리 협력 ACDM 회의 개최(2016.4., 인도네시아)
- EAS 긴급 재난 대응 도상훈련(Table-Top Excercise(TTX) 개최(2016.11., 인도네시아)
- EAS 재난관리 협력 ACDM 회의 개최(2017.4., 라오스)
- EAS 국제재해관리지원 워크숍 개최(2018.5., 호주)

사. 아세안 연계성 분야

- 제6차 EAS 정상회의시 「아세안 연계성에 관한 EAS 선언」 채택
- 제1차 한-ACCC 고위급 정책대화 개최(2013.6., 인도네시아)

- 제4차 아세안 연계성 심포지엄 개최(2013.8., 브루나이)
- 제5차 아세안 연계성 심포지엄 개최(2014.9., 미얀마)
- 제6차 아세안 연계성 심포지엄 개최(2015.10., 말레이시아)
- 제7차 아세안 연계성 심포지엄 개최(2016.10., 라오스)
 - 29-89차 아세안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MPAC 2025 :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채택
- 한-아세안 센터 주최 아세안 연계성 포럼 개최
 - 제3차(2015.10., 한국), 제4차(2016.11., 한국), 제5차 (2017.11., 한국) 개최
- 제8차 아세안 연계성 심포지엄 개최(2017.10., 필리핀)
- 제9차 아세안 연계성 심포지엄 개최(2018.9., 싱가포르)
- 제10차 아세안 연계성 심포지엄 개최(2019.8., 태국)
-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심포지엄 개최(2020.12., 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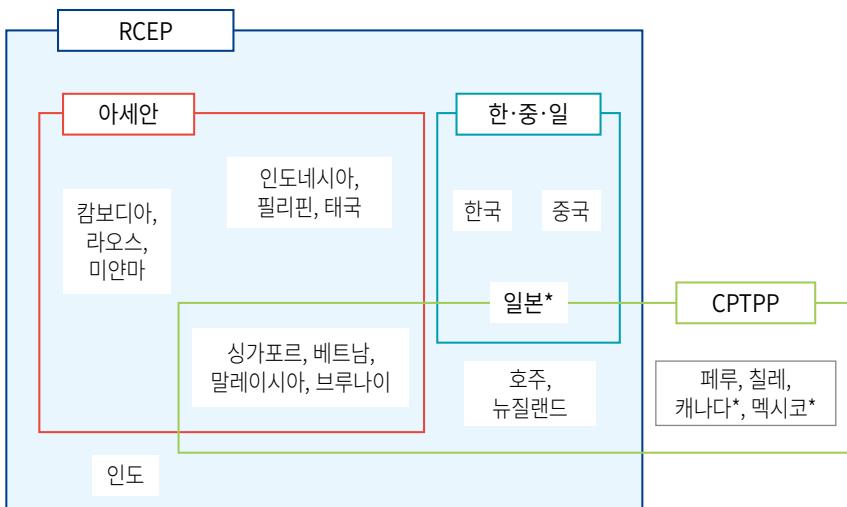
아. 경제 및 무역 분야

- EAS 경제장관회의 개최
 - 제1차(2013.8., 브루나이), 제2차(2014.8., 미얀마), 제3차(2015.8., 말레이시아), 제4차(2016.8., 라오스), 제5차(2017.9., 필리핀), 제6차 (2018.9., 싱가포르), 제7차(2019.9., 태국)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는 2000년대 들어 중국 주도의 EAFTA(아세안+3) 및 일본 주도의 CEPEA(아세안+6)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2011.11월 아세안이 RCEP(아세안++) 작업계획을 제시
 - * EAFTA : East Asia Free Trade Area
 - * CEPE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 *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2012.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시 아세안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는 RCEP 협상개시 선언
- RCEP 협상 경과
 - 2013년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의 공식협상, 19차례 RCEP 장관회의 등 개최
 - 2019.11월 제3차 정상회의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20년 서명 하기로 합의
 - 2020.11월 제4차 정상회의시 서명 추진 중

<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동향 >



※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2018.3월 체결/2018.12월 발효)

아세안 개황

- 인 쇄 | 2020년 11월
- 발 행 | 2020년 11월
- 발행처 | 외교부 아세안국 아세안협력과
- 인 쇄·제 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쇄사업소